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2년 베트남의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는?

- 코로나19와 경기 부양, 베트남의 선택은?

2P

베트남 벤처캐피털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

39P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 베트남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 KOTRA 하노이무역관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 베트남 소비 트렌드 전망	… … … KOTRA 호치민무역관	7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책>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1) 국가 디지털 혁신 개발계획	… … …	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 … …	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 … … 중소기업중앙회(KBIZ)	34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4탄>	… … … K-MARKET 고상구 회장	37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타트업> 베트남 스타트업 & 벤처캐피털	… … … 하만충 변호사	4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률> 베트남 토지사용권	… … … 김유호 변호사	45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응예안성>	… … …	47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지표	… … …	5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 …	59

행복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시내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 및 제작: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문의처: +84 24-3946-0511 |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



2022년 베트남의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는?

- 코로나19와 경기 부양, 베트남의 선택은?
- 세계 주요 경제기관, 2022년 베트남 경제성장을 6%대 이상 전망

KOTRA의 2022년 베트남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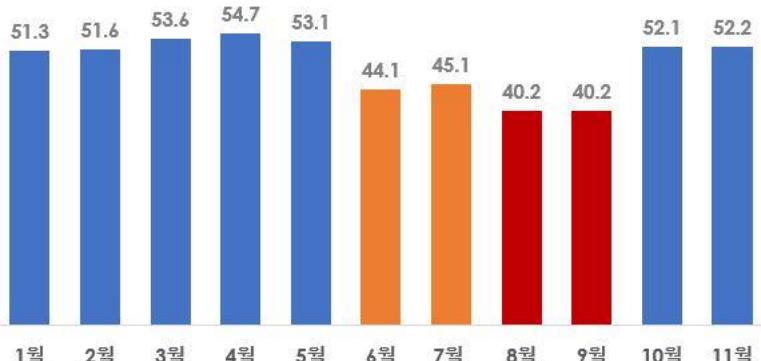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휘청했던 2021년 베트남 경제

'방역 모범국, GVC 재편의 수혜국, 아세안 성장을 견인할 국가'. 2021년 상반기까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을 칭할 때 사용하던 현란한 수식어이다. 베트남은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2.9% 플러스 성장을 이룬 국가이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1년 당초 연간 경제성장을 목표치를 6.5~7.0%로 설정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제로 상반기 5.6%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4월 말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4차 확산이 시작되고, 6월을 기점으로 남부지역으로 퍼지면서 백신 접종률이 1%대에 머물던 베트남은 전례 없는 확진자 폭증이라는 비상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도시인 하노이, 호찌민시, 다풍을 포함해 전국 20개 이상의 성·시에 이동제한, 공장 가동 제한, 비필수 업종 운영 금지 등의 강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경제활동 전반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과 물류대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베트남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월 전월(53.1) 대비 무려 9.0 포인트 급락한 44.1을 기록하며 9월까지 악화기로를 걸었다.

<2021년 1월~11월 베트남 월별 PMI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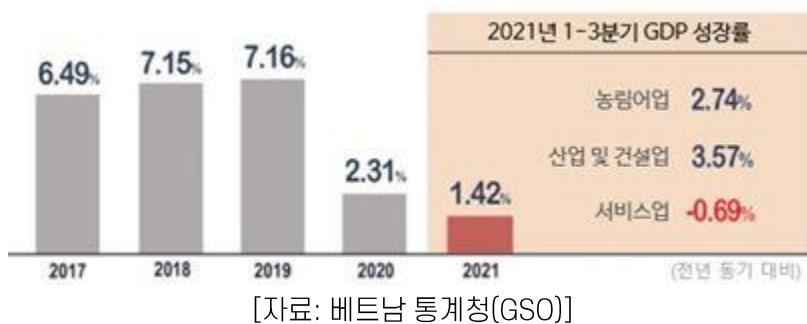


주: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
[자료: IHS Markit]



그 결과 베트남의 2021년 3분기 GDP 성장률은 -6.17%를 기록하며, 분기별 성장을 발표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3분기 경제 타격으로 인해 2021년 1~3분기 GDP 성장률은 1.42%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0.89%p 낮은 수치이다. 특히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0.69%)하며 전체적인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베트남 1~3분기 GDP 성장률(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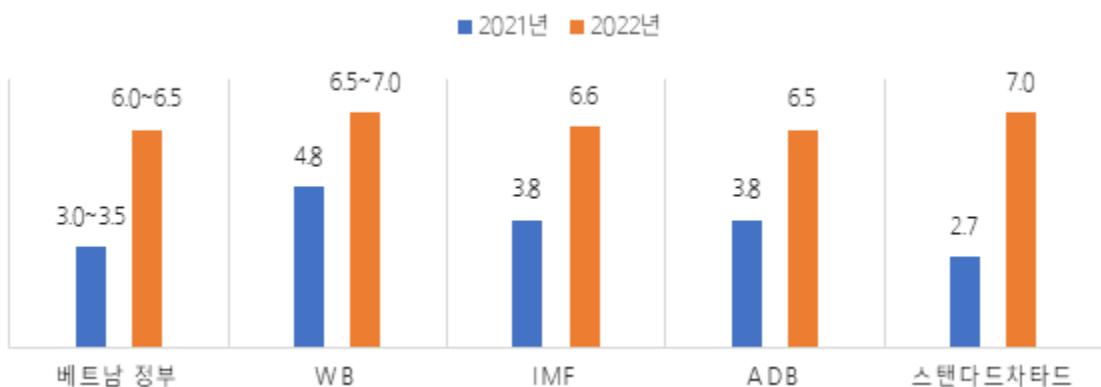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하반기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2021년 베트남 경제성장을 목표치를 일제히 0.9%p~2.0%p 하향 조정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성장 목표치를 3%대로 재설정하였다.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베트남 경제, 2022년엔 V자 반등에 성공할까

베트남 정부와 세계 주요 경제기구에 따르면, '2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6.0%에서, 최고 7.0%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1년 코로나19 타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반등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 정부 및 세계 주요 기관의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 (단위: %)



[자료: 기관별 발간 보고서('21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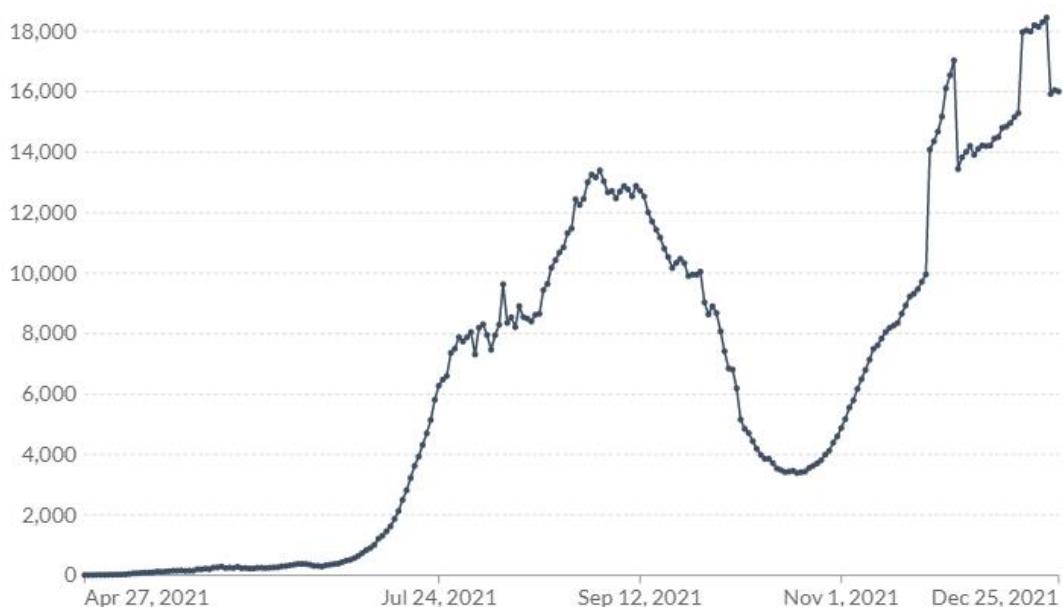
주요 이슈 ①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와 경기부양책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22년에는 전세계가 백신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역시 2022년 세계 상품 교역량의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회귀해 4.7%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보였다. 베트남 또한 단계적 봉쇄 완화를 시작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생산 및 교역의 정상화, 소비 활성화, 국제선 재개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2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제1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점은 베트남 경제에 상당히 우호적인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베트남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는 첫째,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생산과 고용의 병목현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둘째,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더딘 백신 보급과 접종으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 감염 우려이다.

다행히도 베트남 정부는 12월 말인 현재까지 위드코로나 철회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21년 10월 1일부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행한지 1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 수를 통제하지 못하면 베트남 정부는 향후 위드 코로나 정책 지속 이행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정책을 다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봉쇄조치 이후의 경제 충격 고려 시, 정부로서는 이전의 방역정책으로의 회귀를 쉽게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코로나 확산세에 베트남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 추이('21.4월~12월)>



[자료: Our World in Data(2021.12.2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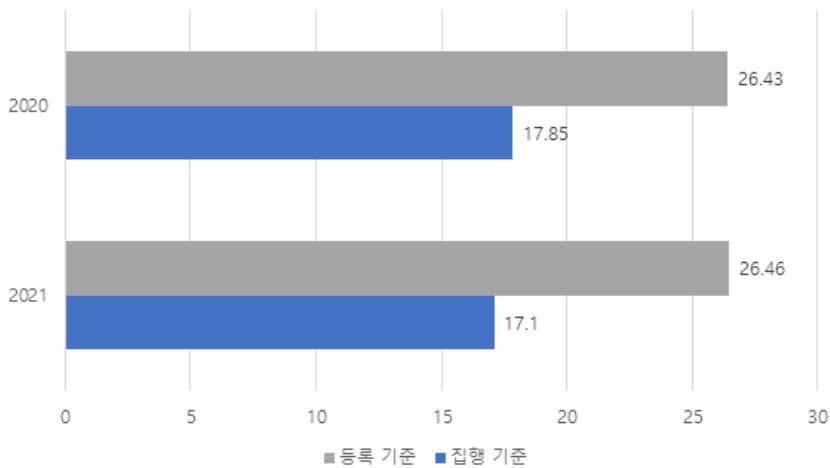


주요 이슈 ② 계속되는 GVC 재편 움직임 속 베트남의 FDI 향방

'18~'19년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 다변화와 베트남으로의 생산설비 이전 가속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베트남 내 생산기지 중심 감염 확산과 봉쇄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비용 증가와 근로자 부족으로 기업들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계획을 철회 또는 보류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V FTA('20년 발효), UK-V FTA('21년 발효)에 이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2년 1분기 발효 예정) 등 베트남 정부의 대외개방 및 통상 저변 확대 노력이 베트남 경제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한-베 FTA를 포함해 총 15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U 27개국을 포함한 약 52개 국가와 협정 관계를 맺는 등 글로벌 교역관계에서 참여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및 GDP를 보유한 RCEP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베트남의 통상 저변이 한층 더 포괄적으로 구축되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FDI)는 올해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1~11월 누계 기준 264억 6천만 달러(등록 기준), 177억 달러(실행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와 비슷한 실적을 유지하였다.

<베트남 1~11월 누계 FDI 금액> (단위: US\$ 십억)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2년도 베트남의 FDI 유치에 핵심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백신 보급과 방역 정책을 통해 얼마나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둘째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을 경험하면서 대두되는 리쇼어링 추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정적인 생산기지로서의 신뢰도(투자자 보호, 제조업 인프라, 물류 시스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주요 이슈 ③ 기후ESG와 탄소중립

베트남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5대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 동부 3,2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 28개의 지방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의 매우 큰 비중이 저지대 해안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 산사태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국영뉴스통신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2050년까지 베트남 국가 소득이 최대 3.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베트남의 탈탄소 움직임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베트남은 '20년 9월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NDC(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27%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팜민찐 총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과의 면담('21년 5월)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존산업에 있어서의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풍력, 수력, 태양열) 비중의 확대, 전기차(VinFast)로 대두되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2022년에도 지속이 예상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변수는 수출 의존적인 베트남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제13차 전당대회를 통해 여전한 정치적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메가 FTA인 RCEP 발효, GVC 재편에 따른 유력 대체생산지역이라는 기회 요인 또한 지니고 있다. 2021년 격변의 한 해를 보낸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2022년 V자 반등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2022년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간의 경제·정치적 관계가 한층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공급망 리스크 등 대내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양국 기업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경제협력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끝>



‘뉴노멀’이 가져온 2022 베트남 소비 트렌드 전망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베트남 소비의 변화가 뚜렷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야외활동 및 외식 등을 감소시켰고 집에서의 요리, 취미, 영상시청과 같은 활동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감염병 시대가 가져온 소비 변화로 2021년 한 해 동안 수요가 급증한 품목과 서비스를 알아보고 앞서 10월 경제 재개 이후 베트남 소매판매가 회복되는 추이 및 소비자 동향과 베트남 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 Google의 ‘올해의 검색어(Year in Search Report)’를 통해 2022년 베트남 소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소매판매액지수 및 소비자 동향

<소매판매액지수 변화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청 GSO]

2021년 11월 베트남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지만 10월에 기록한 -19.5%의 부진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최근 수치는 2021년 4월 말부터 빠르게 확산되는 델타 변종 발병의 일일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매 판매가 7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이후 베트남은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들어가면서 상품 소매, 여행 및 숙박 서비스 등 전체적인 소매판매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소비재 및 서비스 총 소매 판매액> (단위: %, y-o-y)

카테고리	‘21년 11월 증감률	‘21년 1~11월 증감률
상품 소매	-5.9	-4.3
숙박 및 음식 서비스	-33.4	-26
여행	-55.9	-63
기타 서비스	-38	-23.8
총계	-12.2	-8.7

[자료: 베트남 통계청 GSO]



봉쇄조치로 인한 국내외 여행 감소로 10월에 이어 여행 서비스 부문의 소매 판매액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2022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정기항공편을 재개하고 백신 여권을 도입해 입국격리를 3일로 줄이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 재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국내 시장 전반의 상품 유통 촉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 판매가 2021년 말까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12월 20일 기준 베트남은 1억4000만 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했고 성인 인구의 1차 접종률은 96.9%, 2차 접종률은 83.6%에 달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2021년에 수요가 급증한 품목으로는 포장식품, 책, 문구류, 스포츠 의류, 위생 보호 제품 등이 있었으며 팔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서비스로는 온라인쇼핑, 콘텐츠 스트리밍, 배달 및 그랩과 같은 승차호출서비스들이 있었다.

<코로나19 영향, 수요 급증 카테고리>

온라인
쇼핑

CPG 할인 옵션

배달
승차호출
서비스

게임



콘텐츠 스트리밍



전자지갑



에듀테크



2020-2021년 국내 소비자 수요 가속화

위생 소독제,
마스크, 비누,
세안제,
구강청결제

포장 식품



건강기능식품

책,
문구류

전자기기



스포츠 의류

식음료
배달

[자료: Navigating Vietnam's 2021 economic recovery, Cimigo]



2022년 소비자 지출 전망

<베트남 소비자 지출 현황 및 전망> (단위: %, y-o-y)



2022년 소비자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전년대비 5.7% 성장하여 총 927억 달러(2113조 VND)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추정된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매년 8%의 실질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기관의 예측과 일치하며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은 소비자 지출의 반등과 순수출 증가가 될 것이다. 한편 유럽, 미국, 중국의 빠른 백신 접종 진행에 힘입어 글로벌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베트남 수출업체의 주문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소비자 신뢰지수>



주: 베트남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 신뢰 및 지출 의도에 대한 Nielsen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며 지수 수준이 100을 초과하면 낙관을 나타내고 100 미만이면 비관을 나타냄.

[자료: Nielsen]



소비자 지출에 이어 베트남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1년 2분기 114포인트에서 2021년 3분기 105포인트로 하락했다. 전년대비 소비자 신뢰지수는 많이 떨어졌지만 베트남의 경제활동이 전면 재개됨에 따라 이번 분기 말까지 120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22년 약 120포인트를 유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국이란 불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현재(12월 21일 기준)에도 연일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극단적 봉쇄조치 이후 베트남 경제의 큰 손실이 불가피했으며 앞으로 무리한 봉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완전한 '뉴노멀'로 들어서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결과로 전반적인 소비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집'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와 언택트 소비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집'에서 하는 소비 대세 전망

베트남 전역에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정 기간 동안 식당 및 음식 배달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해야만 했다.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집안에서 요리를 해야 했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직접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커피머신, 밥솥, 인덕션 레인지 등 요리용 소형가전에 대한 판매가 급증했다. 한편, SNS상에서 요리 레시피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셀럽들이 사용하는 조리용 소형 가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품의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1년 베트남 조리용 소형 가전 시장 규모는 1억887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올해보다 약 24.2% 성장한 2억345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인들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베트남의 소비력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두 번째로, 홈트레이닝 기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헬스장, 수영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셧다운 된 이후 운동 장소를 집안으로 옮기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한, 베트남 주요 도시의 여러 백화점에서도 홈트레이닝 기구 및 용품 판매점이 대규모로 입점하고 있는 추세이며 홈트레이닝의 발전으로 인해 소형 운동기구, 온라인 트레이닝 서비스 등 신흥 스포츠 소비 트렌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편성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변화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한 필요 인식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2020년 기준 7억977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23년에는 11억2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은 국민 평균 소득수준의 꾸준한 상승과 더불어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운동, 건강한 식사, 면역력 강화 등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이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OTT(Over The Top)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인 TV 시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OTT 플랫폼을 통해 휴대폰으로 TV를 시청하는 추세가 더욱 활발하며 특히, 스포츠 시청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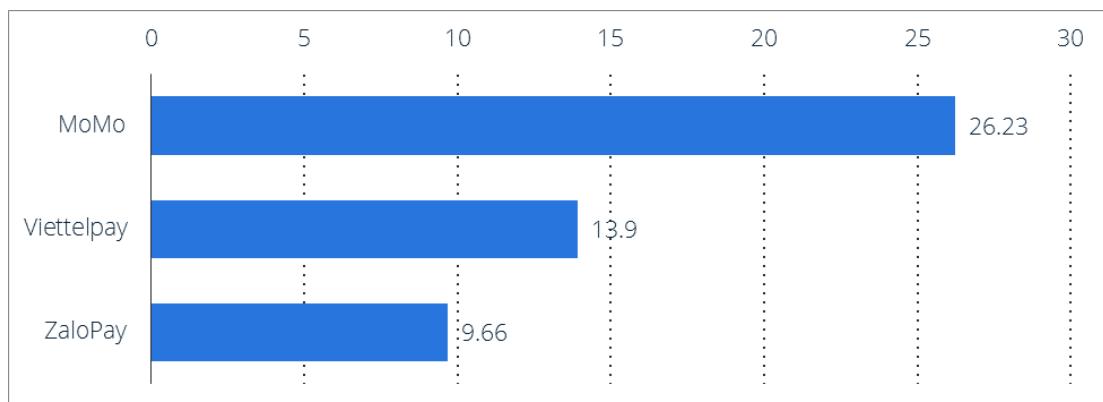
베트남의 경우 2021년 말까지 OTT TV 가입자는 약 370만 명에 달해 전체 전국 유료 TV 가입자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OTT가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풍부한 콘텐츠이다.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OTT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 TV를 통해 OTT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국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가 약 41억 명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2020년 23억5000만 명에서 2026년 28억 명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2026년까지 고정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5억63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TT TV 서비스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베트남 내에서 잠재력이 크고 현대사회 트렌드에 적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택트 소비 증가세 지속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소비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면 활동을 통한 소비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이 전 세대로 확장되면서 언택트 소비는 팬데믹 종식 후에도 소비 시장 핵심 트렌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지갑 부문은 베트남 디지털 결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그 규모는 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국내 모바일 지갑 사용자 수는 약 1920만 명으로, 2020-2025년 사이에 사용자 수는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 전자지갑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장은 주로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지갑은 베트남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이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MoMo는 2020년 기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모바일 지갑의 선두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2623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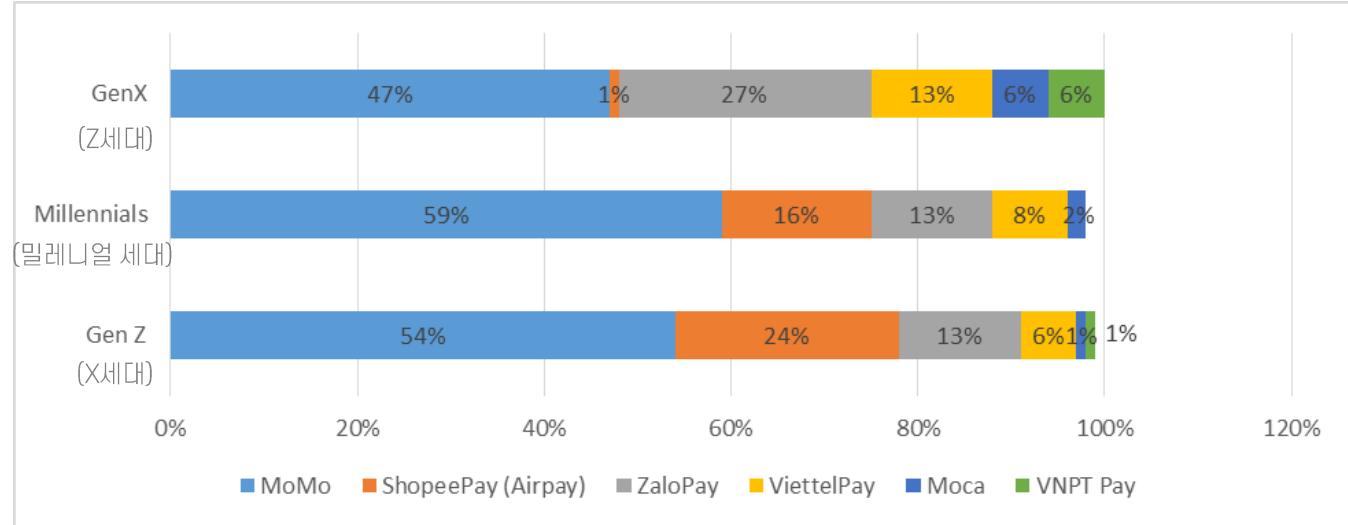
<2021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 전자지갑 누적 설치 수> (단위: 백만)



[자료: Statista]



<2021년 10월 기준 E-Wallet 브랜드 베트남 점유율>



주: Gen X 41-56세, Millennials 25-40세, Gen Z 9-24세 589명의 응답자 기준
(Z세대 187명, 밀레니얼 세대 313명, X세대 70명)

[자료: Statista]

이와 함께, 인간적 교류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고객만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양분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 과정에서 대면활동이 필요없는 소비재 등을 구매할 때는 편리성과 가성비를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소비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할 것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2022년 베트남의 설날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구매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대표 전자상거래 몰 중 하나인 라자다(Lazada)의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들은 쇼핑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에는 2020년 3분기 대비 구매자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라자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 역시 2020년 3분기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설에는 전년대비 다소 소비형태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재와 식료품에 집중하고 음력설 선물 역시 간소화하거나 현금 혹은 기프트 카드 등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것으로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 전자 상거래 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체 인구의 55%가 온라인 쇼핑에 참여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평균 구매액은 1인당 연 6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B2C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익은 매년 25%씩 증가하여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oogle '2021 인기 검색어'로 알아보는 소비 트렌드와 시사점

'20년에는 약 110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업 급여를 신청한 데 이어 '21년에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21년 11월 기준 베트남의 청년 실업률은 5.35%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최하 수준을 기록했으며 장기화된 봉쇄 조치는 베트남 전역의 소비를 무너지게 했다. 또한 10월 경제 재개 이후 소매판매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 노동력 부족 및 물류비 인상 문제가 베트남 경제회복에 여전히 하방 리스크로 존재한다. 한편,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홈트레이닝, 홈카페와 관련된 검색량이 증가했으며 전문 시설에서 받던 미용·피부 관리도 집에서 이루지면서 소비자들의 셀프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어,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비타민 등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 베트남 인기 검색어>

검색어	증감률
실업급여	2000%▲
인터넷 속도 확인	60%▲
홈트레이닝	140%▲
집에서 커피 만드는 방법, 커피머신 보증	20%▲
할인, 쿠폰	110%▲
셀프케어팁	70%▲
비타민+특정 제품의 효능	45%▲
생일, 기념일 인사	100%▲

[자료: Google Year in Search_APAC 2021]

2022년에는 올해에 이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감염병 전개 양상, 공급 차질 해소 시점, 중국 경제 둔화 여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Statista, Google, GSO, Trading Economics, Nielsen, Tiktok, Fitsh Solutions, Lazada, Cimigo, KOTRA 하노이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1)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혁신 개발계획

-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가속화,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 2030년까지 디지털기업 10만 개를 육성하고 디지털기업의 규모를 GDP의 30%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

베트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심화와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외출이 제한되고 오프라인 서비스 업종의 운영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베트남의 소비시장 및 기업 운영 기본 조건의 근간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1년 1월 말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 개막식에서 혁신에 중점을 두고 국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0년 6월,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Decision No. 749/QD-TTg)’을 승인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전략, 행정 및 생산활동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은 베트남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분야로 (1)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혁신 개발계획, (2)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시장 동향 및 성공사례 두 편의 기사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혁신 개발계획을 알아보고 우리 기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Make in Vietnam

‘Make in Vietnam’ 캠페인을 제외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을 논할 수 없다. 2018년 12월 ‘베트남-미얀마 ICT 포럼’에 처음 등장한 이 문구는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포럼 참석자들은 ‘Make in Vietnam’을 듣고 문법이 잘못됐거나 실수로 연설문의 철자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이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이 문구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Make in …’은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슬로건이다. 인도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9월 ‘Make in India’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결과 인도는 2015년 FDI 투자 600억 달러 유치에 성공하며 해외 기업의 글로벌 목적지로 부상하게 된다. 인도의 케이스를 본다면 인도를 주요 공급망으로 만들기 위한 ‘Make in India’ 캠페인처럼 ‘Make in Vietnam’을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Make in Vietnam’은 베트남 ICT 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국가 ICT 산업 진흥 슬로건이다. 베트남 정부는 ‘Make in Vietnam’을 통해 FDI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 및 생산기지로 사용되던 수동적인 베트남을 ‘Made in Vietnam’으로 구분하고 ‘Make in Vietnam’처럼 능동적인 베트남으로 재탄생 하기를 원한다.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통합하면서 베트남 고유의 기술과 기업을 개발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목표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결정문을 통해 국가 다방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8대 우선 개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결정문에서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지털 기술 기업 육성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했다. 개발 목표는 3개 분야(정부, 경제, 사회)로 구분돼 세부지표별로 2025년 및 2030년까지의 목표가 수립됐다.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개요>

구분		2025년 목표	2030년 목표
정부	레벨4 공공서비스 온라인화 및 디지털 기기 사용 최적화	서비스 80%	서비스 100%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70위	50위
경제	GDP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20%	30%
	각 산업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10% 이상	20% 이상
	연간 생산성 증가률	7%	8%
	ICT 발전지수(IDI) 순위	50위	30위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순위	50위	30위
	글로벌 혁신지수(GII) 순위	35위	30위
사회	광섬유 인터넷 보급	가계의 80%	전국적 보급
	4G/5G 서비스 보급	4G/5G, 스마트폰 전국적 보급	5G 서비스 전국적 보급
	온라인 예금계좌 보급률	인구의 50%	인구의 80%
	글로벌 사이버안전지수(GCI) 순위	40위	30위

[자료: Decision No. 749/QD-TTg (2020.6.3.)]

<베트남 중점 육성 디지털 기술 기업 분류>

그룹1	핵심 기술 개발 기업	2030년까지 디지털기업을 10만 개 육성하고 디지털기업의 규모가 GDP의 30% 수준이 되도록 육성
그룹2	디지털 기술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그룹3	디지털 기술 솔루션 구축 기업	
그룹4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기업	

[자료: Decision No. 749/QD-TTg (2020.6.3.)]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혁신 우선 분야로 헬스케어, 교육, 금융, 농업, 교통 및 물류,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산업 제조 등 8개 부문을 선정해 중점 육성 계획임을 발표했다. 각 분야별 세부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디지털 혁신 우선 개발 분야 및 개발계획>

분야	세부 개발내용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의료 플랫폼을 개발을 통해 <u>원격 의료 서비스</u>를 제공 - <u>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 및 의료 시스템</u>을 점진적으로 개발 - 의료 시설에 <u>디지털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행정 개혁을 촉진</u>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원격 학습 및 교육</u>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리 - 교육 및 학습 활동에 디지털 기술 적용, 자료 및 교과서 디지털화 - 모든 교육 기관은 원격 학습 및 교육 활동 구축, <u>커리큘럼의 최소 20%</u>는 실험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금융을 개발하고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u>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u> - 세금, 관세, 재무 및 증권 거래의 <u>모든 측면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u> -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 은행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 핀테크 회사 및 지불 중개자와의 협력을 촉진해 국가 금융 통합을 촉진 - 모바일 결제 및 P2P 대출과 같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은행의 접근성 강화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에 중점을 두고 첨단 농업을 촉진하고 경제에서 <u>디지털 농업의 비중을 향상</u> - 토지,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 대규모 농업정보시스템 개발에 주력 - 농업 활동에 대한 서비스의 공중 및 지상 통합 모니터링 및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 - 제품 공급망과 원산지를 관리하고 감독해 적시성, 투명성, 정확성, 식품 위생 및 안전을 보장
교통 및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및 국도를 중심으로 <u>스마트 교통 시스템</u>을 개발 - 물류 인프라 전환(항만, 공항, 철도, 창고 등) - 교통 인프라 관리, 상업용 차량 및 차량 운영자 관리, 디지털 문서를 통한 차량 등록 및 관리, 디지털 운전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산업과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u>네트워크 최적화 및 자동화</u> - 디지털 전기 계량기 연결을 통한 전력망 문제 식별, 전기 에너지 손실 감지
천연자원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및 기타 분야(국가 지리, 천연자원 및 환경 모니터링, 생물 다양성, 폐기물 출처 원격 감지, 기후 변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시스템 개발
산업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공장 구축, 스마트 운영, 스마트 제품 및 데이터 관련 서비스 개발, 근로자의 디지털 기술 향상

[자료: Decision No. 749/QD-TTg (2020.6.3.)]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관련 시행령

PwC는 지난 2021년 3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실태 보고서’를 발행해 베트남이 산업 및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PwC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정부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발표된 시행령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세부정책>

제목	관련 부처	문서 번호	발행일
베트남 4차산업 혁명 결의안	총리결정서	Resolution No. 52-NQ/TW	2019년 9월 27일
2030년을 지향하는 2025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 개발 계획	정보통신부 (MIC)	749/QD-TTg	2020년 6월 3일
2025년까지 국가 혁신 창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 정책	과학기술부	844/QD-TTg	2016년 5월 18일
2025년까지 국가 학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국가 학생 스타트업 경진 대회)	교육훈련부 (MoET)	Project 1665	2017년 10월 30일(2018년 국가 학생 스타트업 경진 대회 첫 개최 후 매년 개최)
2030년까지 인공 지능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전략	총리결정서	Decision No. 127 / QD-TTg	2021년 1월 26일
4차산업 혁명 국가 전략 초안	기획투자부 (MPI)	초안 마련 중	-

[자료: ‘디지털 전환 실태 보고서(Digital readiness report)’, PwC (2021.3.)]

전자정부 개발 5개년 계획과 이행 단계

베트남 정부는 2021년 3월 10일, 지난 5년 동안의 전자정부 개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노이에서 개최한 바 있다. 그 당시 총리실 장관이었던 Mai Tien Dung 장관은 공공 서비스의 수가 2019년 12월 9일(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런칭 이후) 8개에서 2021년 3월 10일 기준 2,800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 포털은 4가지 관리 수준에서 약 6,800건의 관리 절차를 제공하고 2021년 3월 10일 기준 1억 1,600만 회 이상의 방문과 46만 8,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을 통해 94만 건 이상의 행정 문서가 온라인으로 처리됐으며 6만 7,000건, 267억 동 규모의 전자정부 업무를 수행하고 1만 건 이상의 사용자 피드백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실시 이후 매년 8조 1,000억 동(3억 5,153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약했으며 종이 및 배송 비용은 1조 2,000억 동 이상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 정부 포털 서비스는 14개 부처 및 기관 및 37개 지역의 시스템에 연결돼 연간 9조 9,000억 동을 절감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 베트남 기업이 구축한 ‘메이크 인 베트남(Make in Vietnam)’ 기준의 플랫폼은 약 40개에 달하며 2021년 2월에는 기업, 금융, 교육, 의료, 건강보험에 가입한 2,400만 가구, 건강보험 가입자 9,0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포함된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전자정부를 위한 다수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그 당시 총리였던 Nguyen Xuan Phuc 총리는 베트남이 2020년 전자정부 순위에서 193개국 중 86위에 올라 2018년보다 2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축에는 미흡한 법적 환경과 4급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제한된 비율 등 몇 가지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올 7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으며, 각 정부 부처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다른 지방정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시스템 보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베트남 전자정부 서비스의 주요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전자정부 서비스 주요 발전 단계>



[자료: 베트남 정부 포털(VG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시사점: 베트남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의 한계와 가능성

베트남은 세계 유수의 FDI기업 유치를 통해 선진 기술을 차용해 제조·생산하는 것에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궁극적으로 원자재 및 부품의 국내생산 비율을 높이고 독자적인 첨단기술(High-Tech)을 육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다양한 제약 및 한계가 존재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0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베트남 기업의 약 2/3가 디지털 경제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기회를 갖게 해야 하며 온라인 학습, 전자 결제, 전자정부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좀 더 장려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인 자크 모리셋은 이론적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은 일자리를 파괴하기보다 7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5년까지 금융, 통신, 관광 등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디지털 숙련기술을 요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나 베트남 노동력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디지털 숙련 기술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오히려 실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권역의 주요 경쟁국보다 디지털 숙련도가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의 숙련 노동자 수가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전환 속도보다 부족하다고 가정하면 베트남 경제는 2045년까지 최대 200만 개의 디지털 숙련 일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경고했다. 그는 ICT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기술자를 베트남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베트남은 노동력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해 숙련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기술 및 인프라 구축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베트남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베트남 정부의 8대 우선 개발 분야에서 기회를 발굴해 우리 기업의 강점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간 베트남의 FDI 업종은 전자제품, 자동차, 섬유 분야에 치중돼 있었으나 최근 베트남이 혁신기술 유입을 위해 ICT, 서비스 등 기술집약적 분야에 대한 FDI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AI, 5G,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등 한국이 가진 선진 ICT기술은 베트남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HUST)와 공동으로 '네이버-HUST AI 센터'를 산학협력으로 개소한 것처럼 한국의 선진 ICT 인재 육성 시스템을 통해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 발전 계획 및 개요를 살펴봤다. 다음호에서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시장 동향 및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자료: 베트남 정부포털(VGP), 749/QD-TTg, PwC,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세계은행(World Bank)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베트남, 이제는 중부지역에 주목해야 할 때

- 저렴한 생산비용을 무기로 유망 투자진출 대상지로 부상하는 베트남 중부지역
- 협소한 소비 시장과 미약한 인프라 등 약점도 면밀히 따져봐야

남부 호치민과 북부 하노이 일대에 산업단지가 점차 포화됨에 따라, 중부 지방이 베트남의 핵심 투자유치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좁고 긴 국토로 의한 남북 분절 및 불균형 발전 상황을 감안할 때, 베트남 정부는 향후 낙후된 중부지역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며 인건비와 지가 등 비용 측면에서 북,남부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베트남 중부의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는 중부지역

다낭시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로, 베트남 국토의 중앙부이며 인도차이나반도 동부 해안의 관문 항만을 보유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최근에는 ICT 경쟁력 보유, 관광 인프라, 저렴한 투자 비용 등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외국 투자기업은 물론 베트남 기업들 역시 다낭을 신규 제품 혹은 서비스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관광산업 비중 과다 및 협소한 입지 등으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성시별 주요 산업 및 진출 기업 현황

다낭시의 지역 총생산(GRDP)은 3차 산업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22%에 불과하다. 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기며 경제 위기를 겪은 후, ICT 및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FDI 누적액('21년 7월 기준)은 약 35억 달러(876개 프로젝트)이며, 주요 투자 기업은 하이테크파크에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 Universal Alloy Corporation(UAC)과 8천만 달러를 투자한 덴티움(Dentium) 등이 있다. 주요 베트남 기업은 다낭 내 주요 관광지를 개발 운영하는 썬그룹(SUN Group)이 있다.

다낭시 산업단지 현황

다낭시는 관광이 주요 산업인 만큼 환경 오염 유발하는 대규모 굴뚝 산업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신 첨단 하이테크 및 IT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이테크파크, IT파크, 소프트웨어파크 등 인프라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중부지역은 북-남부에 비해 저렴한 지가와 인건비 등 투자 메리트가 큰 지역이나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력과 협소한 시장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부지역은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기업보다는, 저렴한 생산비용을 활용한 수출 생산 기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보다 적합한 투자진출 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디지털 전환과 함께 주목받는 다낭시의 스타트업 환경은?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성장하는 다낭시 스타트업
- 뛰어난 스타트업 환경과 인프라 보유, 한계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베트남은 2021년에 글로벌혁신지수(GII) 순위에서 동남아 3위를 기록하였으며,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유니콘인 많은 국가로, 특히 중부에 위치한 다낭시는 베트남 내에서도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낭시 스타트업의 환경과 인프라

다낭시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12년 연속 베트남 ICT지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매년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하는 이 지수는 도시의 IT산업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기술, IT 적용, 인적 자원 3가지 기준으로 평가되며 다낭시는 인적 자원과 IT기술 적용 부문에서 탄성시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다낭시는 2014년 베트남 최초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1,200여 가지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다낭 스마트시티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기도 하였다.

인적 자원측면에서는 베트남 3대 과학기술대학교와 IT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베 친선IT대학교, IT대기업이 설립한 FPT대학교 등 매년 약 40여개의 IT관련 교육기관에서 5,0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저렴하여 많은 IT관련 투자기업들이 다낭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낭시 스타트업의 한계점

하지만, 다낭시 스타트업의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하노이와 호치민에 비해 기술, 인적 인프라는 좋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인구 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에 기업,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 펀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업에 치중된 산업구조 역시 문제이다. 다낭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의 팜 드 남 트(Pham Duc Nam Trung)이사는 다낭의 산업구조가 아직까지 관광서비스업 중심인 점을 들어 지역 안에서의 유기적인 첨단 산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에 대한 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창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과 규제 철폐가 부족하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 중앙 정부와 다낭시가 발표한 결의안에는 중복되는 규정과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사점

다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베트남 내 IT 및 혁신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이기에, IT기술과 저렴한 인적자원 인프라 활용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번쯤 고려해볼 만한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클릭시 영상으로 이동



베트남 EPE(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신규 준수요건 주요 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 주요 제조기업 대부분 EPE 지정 받아 면세적용
- 2022년 4월까지 장벽설치, CCTV 세관연동, 면세 관리 소프트웨어 구축 요건 갖추어야

EPE(수출가공기업) 제도란 베트남 수출가공구역 내 기업 또는 공업단지, 경제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생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부과하는 간접소비세의 일종으로서 해당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수출제품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면세하는 EPE제도는 우리나라의 보세공장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의 면세요건은 ‘최종 제품 생산 후 수출되는 것’ 이므로 사실상 조건부 면세제도로 볼 수 있는데, 원재료와 완제품의 성상이 공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므로 완제품 1단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수량을 산출하여 소요량(Material Requirement)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면세원재료와 수출제품의 회사 내부 관리기록을 베트남 관세당국에 연단위로 보고하는 절차를 정산보고(수책관리)라고 한다.

2021년 개정 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상의 EPE 신규요건

EPE 기업의 신규요건을 요약하자면, ① 외부와 구분되는 장벽을 갖추고 게이트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② 해당 게이트(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세관당국에 CCTV 데이터를 전송해야하고, ③ 면세 원재료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여야 한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문(제2687/TCHQ-TXNK호)에 따라 EPE 기업 신규요건에 대한 준수는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21년 4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요건 준수는 세관당국의 요건 충족 여부 완료통지를 받은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2022년 4월 25일을 전후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EPE 기업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EPE 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문(제2687/TCHQ-TXNK호)에서 신규 요건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의 세부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시사점

우리 제조기업이 베트남에 투자·진출함에 있어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은 투자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을 선택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예시인 면세제도는 EPE 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주어지는 면세와 EPE 기업에 대한 면세로 구분되는데, EPE 기업은 한국의 보세공장처럼 세법상 외국으로 취급되는 구역이므로 물품의 반·출입이 보다 자유롭고 해외 생산기지를 운영하려는 외국인 기업에 특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운영 중인 EPE 기업도 2021년 개정된 수출입세법 시행령 상의 EPE 기업 신규요건의 요건 준수 여부를 세관당국에 확인 받아야 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 준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2년 4월을 전후로 EPE기업의 요건 준수 관련 이슈가 진출기업에게 큰 화두가 될 것이며, 요건 준수 및 세관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니 관련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2022년,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하세요

- 세계 최대 FTA인 RCEP 2022년 1월 발효 예정, 한국은 2022년 2월 발효 예정
- 비준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우선 발효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2022년 1월1일로 공식 확정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RCEP은 협정문에 의거해 2022년 1월1일부터 이들 10개국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세안사무국 기탁 60일 후인 2022년 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CASE1. (전기, 전자, 기계 산업) 역내국 조달 원재료에 대한 누적 원산지 활용 전략

베트남의 부품 산업은 경쟁력이 낮다. 진출 기업들 중 특히 전기, 전자 및 기계 산업분야의 기업은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원재료의 RCEP 원산지 누적을 통하여 베트남 산 완제품을 생산한 후 RCEP국가에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ASE2. (섬유,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가능성이 용이한 협정 선택

수출자는 자국산 제품 수출을 위해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체결한 FTA 협정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이 쉬운 쪽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공산품에 비해 까다로운 편으로, 특정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는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CASE3. (화학) 제조 공정 고려한 협정 선택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 중 하나로 원료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 원재료 수급 및 제품 수출을 위한 칙적의 생산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실제 진출기업들이 생산공장 이전 검토 시, FTA 활용에 대한 검토 미비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수입 원재료 및 수출지를 고려한 FTA 선택이 필요하다.

시사점

베트남 입장에서 RCEPOI 발효될 경우, 기존에 체결된 FTA에 비해 관세 혜택이나 신규 체약국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위에서 검토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경우 RCEP으로 인한 ‘베트남산’ 제품 수출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FTA 활용과 더불어 강조되는 바이나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은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 요청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산지 증명 및 서류 보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점검을 해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2021년 베트남의 한국인 취업 현황은?

-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들의 베트남 입국 어려워
- 22년 상반기부턴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현지 취업시장도 다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한국의 對 베트남 누적 투자금액은 ('88.1월 ~ '21.10월) 739억불로 1위 투자국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우리 진출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현지에서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베트남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계속 증가해왔다. 베트남 남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2020년 기준 약 4,500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통 진출기업에서 한국인들을 중간관리자로 현지 채용 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채용 분야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업을 기반이다. 제조업(진출기업 업종비중: 57%) 중에서도 남부지방은 특히 섬유·봉제(22%) 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으며, 그 이외로는 기타제조(16%), 전기전자(11%), 그리고 기계장비(6%)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산업(진출기업 업종비중: 12%), 건설업(진출기업 업종비중: 10%)도 많이 들어와 있으며, 최근 물류유통 기업들도 꾸준히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주로 채용되는 직무는 어떤 것일까.

호치민무역관 K-move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무관리직이 84%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 제조업 기반의 기업진출이라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공장에 현지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면, 근로자와 경영진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간 다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생산관리, 그리고 인사,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책임자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뽑힌 관리자는 공장 근로자들과도 꾸준히 소통 해야하며, 경영진 또는 최종 책임자와의 합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지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현지 대학에서의 교환학생 또는 유학 경험이 있다면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현지에서의 인턴 경험 등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및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베트남으로의 출입국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에 귀국한 사람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것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12월 관광지를 시작으로 관광목적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상반기 부터는 격리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베트남 정부의 가이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2022년 3~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베트남 취업 희망자의 현지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활발한 취업이 기대된다. 이 시기에 맞추어 K-move 센터에서도 각종 채용지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구직자 입장에서는 입국이 자유로워지는 시기에 맞추어 그간의 역량을 다져 놓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코로나19와 2022 베트남 설연휴 소비 패턴 변화

- 18~49세 베트남 소비자 650명 중 69%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
- 뗏(음력설) 선물 바구니 등의 선물 대신 전년 대비 축소된 선물 구입 전망

예년 대비 빨라진 설 쇼핑 시기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관계자는 KOTRA 하노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말까지 코로나19의 유행은 계속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며, 많은 성·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되어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1년 설연휴의 소비자 구매력은 전년대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귀중품, 장식품 등 선물을 준비하기보다는 연휴에 따른 식료품과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알아보는 2022년 설연휴 소비 패턴 동향

베트남의 시장조사기관인 Q&Me는 2021년 11월 18~49세의 성인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설연휴 소비패턴 예측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69%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당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25세 이상의 응답자 그룹 중의 64%는 연중 최대 지출이 필요한 설을 앞두고 불안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식료품, 필수품, 선물 구매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예년보다 저축 규모를 늘리는 응답자도 49%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0%는 2022년 설을 대비한 쇼핑 지출 예산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9%는 대폭 감소한다고 답했다.

뗏 선물바구니도 간소화

뗏에 베트남 소비자가 사업 파트너 혹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하는 선물 바구니는 가격대와 내용물이 다양하다. 예전에는 비록 가정 경제 규모에서 무리한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선물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와인, 치즈, 올리브 통조림, 캐비어, 사탕, 초콜릿 등 고급 수입 식품 혹은 간식을 담은 선물 바구니는 200만~500만 동(10만~25만 원) 선에 판매되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선물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생필품과 직접 소비할 식료품 등 필수 소비항목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뗏 선물바구니도 간소화하는 추세이다.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소비시장의 변화이다. 베트남 역시 소비규모를 줄이고 저축 비율을 높이며, 불필요한 소비를 자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설에는 전년대비 다소 소비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재와 식료품에 집중하고 설 선물 역시 간소화하거나 현금 혹은 기프트 카드 등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것으로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성장단계에 있는 베트남 웹툰시장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콘텐츠 수요 증가
- 구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류 효과에 더욱 힘입는 K-웹툰

베트남의 전자책 앱 및 웹툰시장 개요

베트남의 전체 출판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억 2100만 달러이며, 도이마이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 중에 있다. 전자책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개발한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으며 지불수단 등의 편의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서점인 비나북에서 출시한 비나북 리더스(Vinabook Readers), 제 출판사에서 출시한 와이북(Ybook.vn), 호치민 출판사에서 출시한 싸익웹(Sachweb.vn)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자책이 일반 책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은 현지 통화 기준 약 5만 동 내외에 형성되어 있고,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웹툰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이며, 이때 유료 애플리케이션들이 출시되었다.

한국웹툰의 선호도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한국의 영화 및 드라마가 흥행가도를 달리는 만큼 한국 웹툰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 할 수 있다. 대표 플랫폼 코미클라에서의 구매순위를 확인해본 결과, TOP 5 안에 1~4위까지 모두 한국 작품이며, 5위가 현지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웹툰에 대한 소비 전망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OTT 서비스 등 모바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수요도 증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한류문화가 2000년대 초부터 비교적 잘 자리 잡은 국가 중에 하나로, 현재 2030 세대, 특히 여성층이 한국 문화에 익숙한 만큼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전망이 밝다. 다만, 한류가 무조건적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지 MCN 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 아직은 구매력이 부족한 만큼, 대규모 콘서트나 공연 등에 대한 소비효과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시사점

베트남 웹툰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물론 존재한다. 2018년부터 본격 성장하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하며, 불법 유통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어 무조건 국내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닐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성공사례와 같이 현지 작가들에 대한 육성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한류에 대한 소비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전반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하는 것처럼, 한국 웹툰의 베트남 시장 진출도 중요하지만, 전체 웹툰시장의 장기적인 성장도 필수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유산균 제품 시장 동향

- 유산균 제품을 포함한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2023년에는 11억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설문조사 응답자의 66%, 면역체계 개선 및 강화 위해 건강보조식품 섭취

시장동향

베트남은 국민 평균 소득수준의 꾸준한 상승과 더불어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운동, 건강한 식사, 면역력 강화 등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되고 있다. Euro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균 제품을 포함한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2020년 기준 7억 977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23년에는 11억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동향

베트남 시장에서는 서구권 국가들의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국, 유럽, 일본산 건강보조제품은 오랜 기간 연구 및 생산을 거쳐 인증이 된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 기업들은 이전에 베트남 전통 요법, 한방 요법을 이용한 제품 생산에 집중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듯 수입 제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의 HS Code 분류 기준에 따른 HS Code 210690(기타 조제 식료품)의 对 베트남 주요 수입국은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순이다.

관세율 및 인증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베트남/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베트남 HS CODE 기준 2106.90.91(식료품 또는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종류의 영양가를 가진 기타 물질과 화학 물질의 기타 혼합물)의 경우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베트남/아세안 FTA의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

전문가 인터뷰 및 시사점

베트남 현지 약사 L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타민과 면역 증진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 유산균 제품은 캡슐 타입의 제품이 섭취가 간편해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봉쇄 여파로, 매출이 주춤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건강기능제품의 수요와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어느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베트남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유산균 제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베트남 소비자들은 공식 인증을 받은 수입제품을 선호한다. 물론, 복잡한 인증 제도와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때때로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수출에 애를 먹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산균 분말과 같은 제품들은 아직까지 베트남 시장에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과 판매전략을 가지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미래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호치민, 2022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호치민시는 2022년 1월부터 신규 환경보호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가구당 월평균 폐기물 처리 비용은 다음과 같음.

- 1) 도심 큰 길가에 있는 주택, 고급 아파트(A/B 등급): 월 평균 22,000동(약 1,100원)
- 2) 도심 골목 안쪽에 있는 주택, 일반 아파트 (C/D등급) : 월 평균 16,500동(약 825원)
- 3) 교외 큰 길가에 위치한 주택: 월 평균 16,500 동(약 825원)
- 4) 교외 골목에 위치한 주택: 월 평균 11,000동(약 550원)

이외에 일반 쓰레기를 근교 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하는 경우 월 66,000동(약 3,300원), 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경우 월 12만 1,000동(약 6,500원),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장에 폐기하는 경우 평방미터 당 월 19만 4,480동(약 9,700원) 또는 1톤 당 월 46만 3,045동(약 2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Hanoi Moi, 12. 22]

▶ 까마우 성 Phu Tan 지역에서 건설중이던 교량의 경간 붕괴, 인명피해 無

2021년 12월 21일 오전 9시경, 공사가 진행중이던 까마우성 Phu Tan 지역의 Cai Doi Vam 강을 지나는 교량의 경간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교량 하부에 선박이 지나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붕괴된 경간으로 인하여 Cai Doi Vam 강 어귀까지 수로를 임시 차단함. 까마우성 교통부 국장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중이라고 밝힘. 해당 교량은 2020년 총 길이 100m 이상, 투자규모 540억 동(240만 달러) 규모로 착공되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는 330억 동(142만 달러) 규모가 투자된 것으로 밝혀짐.

[VN Express, 12. 21]

▶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등록 기업 26만 3,182개사

국세총국은 2020년 10월 19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시행령(DecisionNo.123/2020-ND-CP)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21일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를 정식 배포한지 1개월이 지난 12월 21일 기준, 26만 3,182개사가 등록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6개 성·시 기업의 약 71%를 차지한다고 밝힘.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배포 운영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화 핫라인, 이메일, 웹사이트 등으로 피드백을 받고, 총 9,748건의 지원 요청을 접수 및 처리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범 운영중인 6개 성·시 중에서 꽝닌성의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기업비율은 98%로 가장 높으며, 하노이 시는 90%로 2위를 기록함. 한편, 지난 2021년 11월 21일, 재무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위한 2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2021년 11월 21일부터 하노이·호치민·하이퐁·꽝닌·빈딘·푸토 6개 성·시에서 1년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는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나머지 57개 지역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Nhan Dan, 12. 21]



▶ 2021년 섬유·의류 수출규모 390억 달러 달성 전망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는 베트남의 2021년 섬유·의류 수출규모는 39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연초, VITAS는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액이 39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중단 여파로 380억~385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한 바 있음. 또한 VITAS는 2022년 수출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잘 통제 된다면 425억~435억 달러, 중간 수준으로 통제된다면 400억~410억 달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현재 수준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유지된다면 380억~390억 달러를 수출 할 것이라고 전망함.

[Hanoi Moi, 12. 20]

▶ 효성비나케미칼, 까이멥 산업단지에 PP공장 및 LPG저장소 정식 가동 시작

효성그룹의 베트남 법인인 효성비나케미칼은 베트남 바리야-붕따우성 까이멥(Cai Mep) 산업단지에 폴리프로필렌(PP) 공장과 액화석유가스(LPG) 지하 저장소 준공을 마치고 정식 가동을 시작함. 이 프로젝트는 총 투자자본 13억 달러 규모로 2018년 5월에 승인 되었으며, 2018년 말 착공된 바 있음. 폴리프로필렌 공장은 2020년 3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LPG 저장소는 2021년 9월에 시범 운전을 시작함. 이 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연간 생산량은 65만 톤이며, 이 중 30만 톤은 베트남 시장에 공급할 예정임. 한편, 2007년 베트남에 진출한 효성그룹은 지금까지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18억 달러, 중부 꽝남성에 2억 5,000만 달러, 바리야-붕따우 성에 13억 달러 등 총 34억 달러를 투자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2. 20]

▶ 베트남 섬유의류 기업들, 인력 부족 및 물류비 급증으로 신규 수출 주문 거절

베트남 남부의 섬유의류 기업들은 인력 부족과 높아진 물류 운송비용에 신규 수출 주문을 거절하고 있음. 생산이 재개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는 인력부족,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코로나 검사 비용이며,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 및 배송 지연 및 배송 기한을 맞추기 위한 항공 화물 이용과 같은 잠재적 물류비 상승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고용관계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해외 바이어의 66.7%가 배송 지연에 대해 감내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항공화물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16.7%에 불과하였음.

[VN Express, 12. 18]



▶ 베트남 '22년 새우 수출 39억 달러 전망

베트남은 '21년 4월 이후로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기후변화로 인해 새우를 포함한 수산 양식에 큰 어려움을 겪음. 하지만 10월 이후 각 지역별로 조치가 완화되며 새우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으며, 11월 새우 수출액은 3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 1월~11월까지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함. 가장 성장세가 높은 베트남의 새우 수출 시장으로는 미국, EU, 호주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은 '21년 11월부터 인도산 새우에 반덤핑관세를 3%에서 7.15%로 높이며 베트남의 대미 새우 수출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Cong Thuong, 12. 18]

▶ 보건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F1이라도 자가격리 7일 허용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1차 접촉자인 F1 분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다면 7 일간 자가격리하는 신규 지침을 발표함. 기존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라도 F1으로 분류되면 각 군·현의 방침에 따라서 일부는 7일간 중앙 격리소에 이송 되고 일부는 자가격리를 하는 등 실무현장에서의 비일관성이 지적되어 왔음. 다만 F1으로 분류되어 7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1일차와 7일차에 RT-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함.

[Vietnamnet, 12. 17]

▶ 앰코테크놀로지, 엔퐁 II-C 산업단지에 16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예정

한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인 앰코테크놀로지는 박닌성 엔퐁 II-C 산업단지 23만 870평방미터 규모 부지에 16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조립 공장을 설립하며 2022년 1분기에 착공하여 2023년부터 생산을 시작 할 예정임. 1단계 사업기간동안에는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시스템(SiP)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준 공할 계획이며, 2035년까지 총 16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계획임. 앰코테크놀로지는 삼성·SK 하이닉스, LG, 엔비디아, 폭스콘, 럭스웨어, 고어텍 등에 공급하는 반도체패키징 및 테스트 시장 부문 세계 2위 업체임.

[VN Express, 12. 15]

▶ 세계은행, 12월 거시경제 검토 보고서에서 베트남 경제 회복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1년 12월 발간한 베트남 거시경제 검토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11월 산업생산지수(IIP)는 전월 대비 5.5% 증가했으며, 호치민시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경우 전월 대비 13.3% 증가함.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로 10월과 동일하며 중립 임계값인 50.0을 상회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내수 회복의 지속 덕분에 11월 소비재 및 서비스의 총 판매규모는 전월 대비 6.2% 증가했으며, 11월 수출규모는 319 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11월 무역수지흑자는 13억 달러를 달성). 또한 11월 신규 기업 등록 수는 전월 대비 45% 증가하여 5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세계은행은 향후 베트남 정부가 민간부문의 수요 촉진을 지원하고 내수경기 회복과 성장에 기여하는 유연한 재정정책을 펼 것을 제언함.

[Nhan Dan, 12. 14]



▶ 독일, 베트남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하여 모더나 백신 255만 8,000만 회분 기증

12월 14일 주베트남 독일 대사관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하여 독일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지원하는 모더나 백신 255만 8,000회분이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밝힘. 현재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베트남에 기증된 백신은 4,519만 7,910회 분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총 1,000만 회 분의 백신을 기증할 것이라고 밝힘

[베트남 정부 포털, 12. 14]

▶ 한국-베트남 사회보험 협정 체결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이 12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베트남-한국 사회보험 협정체결식에 임석하고 대표자들과 논의했다고 보도함. 동 체결식에서 한국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이번에 서명한 한-베트남 사회보험 협정이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Nhan Dan, 12. 14]

▶ 빈그룹, 하띤성 봉양 경제구역에 8헥타르 규모 배터리 공장 착공

빈그룹 자회사인 Vines Energy Solutions Joint Stock Company는 12월 12일 봉양경제구역에 8헥타르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착공함. 1단계 사업에서는 4조 동(약 1억 7,370만 달러) 규모의 부품 주조, 용접 및 포장 작업장을 포함한 공장에서 연간 10만 개의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공장을 확장하여 연간 생산 규모를 배터리 팩 100만 개로 증대할 계획임. 빈그룹이 1단계에서 생산하는 배터리팩은 전기 스쿠터 등에 탑재할 예정이나, 궁극적으로는 빈그룹의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빈패스트 전기차에 사용하여 부품을 현지화를 목표한다고 밝힘. 한편, 미국 수출용 빈패스트 전기차에 탑재되는 제품은 삼성 SDI사 배터리로 알려짐.

[VN Express, 12. 12]

▶ 베트남-한국, 양국 교역액 2023년까지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 수립

베트남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은 2021년 12월 12일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여 양국 교역액 1,000억 달러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음.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지속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세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양국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12.85%인 660억 달러에 달하며, 베트남의 수출 시장으로는 네번째로 큰 191억 달러 규모임. 또한 동북아시아는 연간 13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베트남 신선·가공 과일의 수출이 가능하며, 현재 베트남은 한국에 5종의 과일을 수출하고 있음.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응웬 흥 지엔은 베트남과 한국 간에는 FTA, 글로벌 가치사슬 간 연결 등 성장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2023년까지 양국 교역액 1,000억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임.

[Vietnam Plus, 12. 11]



▶ LEGO, 베트남 빈즈엉 VSIP III 산업공단에 신규 공장 건립 MOU 체결

LEGO Group은 12월 9일 베트남 VSIP III 산업공단(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에 신규 공장 설립 MOU를 체결함. LEGO 빈즈엉 공장은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함. 44헥타르 부지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향후 15년 동안 최대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LEGO의 여섯번째 제조공장이자, 아시아의 두번째 공장이 될 예정임. 또한 이 공장은 LEGO Group의 첫번째 탄소중립 공장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가 포함될 예정임. VSIP는 LEGO 그룹을 대신하여 인근에 태양열 발전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며, LEGO Group은 미국 녹색건축위원회의 LEED Gold 인증 획득을 목표로 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LEGO Group은 공장 건설을 위해 별목된 초목을 보상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총 5만 그루의 나무를 식수할 예정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12. 9]

▶ 하노이, 12학년(고3) 학생 정원의 50% 등교 실시

12월 6일부터 12학년(고3) 학생의 50% 등교를 실시하였으며 이외 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유지함. 하노이의 30개 학군은 12월 6일부터 12학년만 등교 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위험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분을 충족하면 개학할 수 있음.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며 VnExpres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8% 이상의 학부모는 자녀의 등교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VN Express, 12. 5]

▶ 베트남, 공공 투자 자본 지출 여전히 부진

2021년 11월 말까지 공공 투자 자본 지출은 계획의 63.86%에 겨우 도달 했으며 특히 지출 비율이 55% 미만인 부처, 부문의 수는 여전히 많음. 이 중 국내자본은 69.19%(전년 동기 대비 75%), 해외 자본은 21.51%(전년 동기 대비 40.21%)로 2020년에 비해 눈에 띄게 부진한 모습을 보임. 베트남은 공공 투자 자본 지출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실무단을 구성하는 등 공공 투자지출 가속화를 위해 노력중임.

[Bao Dau Tu, 12. 2]

▶ 다낭, 한국 기업의 ICT 분야 투자 유치

한국은 2021년 11월 기준 총 자본금이 3억 7,800만 달러인 233개의 프로젝트를 보유하여 다낭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자본을 보유한 5개 국가 중 하나임. 11월 30일 오전,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다낭 한국 ICT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힘. 다낭은 2025년까지 ICT 산업 규모를 23억 4천만 달러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ICT 산업은 다낭시 GRDP의 15%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Bao Dau Tu, 11. 30]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Bac Ai 수력발전소 설비조달 및 시공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Bac Ai 수력발전소 설비조달 및 시공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EVN ○ 연락처 : +84-24-6694-1369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Ninh Thuan성, Bac Ai군 ○ 규모 : 약 99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미정 ○ 프로젝트 단계 : 주요 설비 구축 중, 2022년 3분기 입찰 진행 예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계 조달 - 지하 발전소 및 터널 시공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Quang Tri성 인민위원회 ○ 연락처 : +84-233-3553-713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Quang Tri성 ○ 규모 : 약 19.05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WB ○ 프로젝트 단계 : Pre-F/S완료, F/S 진행 중, 2022년 입찰 진행 예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 : Cua Viet Port(Gio Linh군) ~ Thanh An현(Cam Lo군) - 규격 : 길이 13.8km, 4차선, 설계속도 60~80km, Width : 20.5~25.5m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Es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중소기업중앙회(KBIZ)

□ 중소기업중앙회(KBIZ) 소개



- 중소기업중앙회(Korea Federation of SMEs, KBIZ)는 688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에 설립된 경제단체입니다. 현재, 본부(서울 여의도)와 13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975개의 중기 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수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함께해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조직화와 권리보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운영,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2022년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이자 탄소중립, ESG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의미있는 시기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 또한 중소기업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단체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 소개

- 베트남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1억명 인구와 지정학적 이점을 가진 생산시장이자, 매년 5% 이상 지속성장하는 GDP와 더불어 향후 구매력 향상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16년 1월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소를 먼저 개소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현지 중기 네트워크 발굴 및 연계, 내수기업의 글로벌기업화 기반마련,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Es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020 수출컨소시엄 (호치민)



020 수출컨소시엄(하노이)



- 2020년 7월에는 경제단체 분연의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이전을 하였으며, VCCI, 비엣트레이드 및 하노이시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금속조합, LED조명조합 등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단체와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박람회의 한국 통합한국관 구성, 중기 수출컨소시엄 사업 현지개최 등 해외진출 유관기관 간 경쟁이 아닌 수평적 협업연계들을 통해 중소기업간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웨비나



찾아가는 설명회 (박닌)



□ 사무소 새해 다짐 및 업무 계획

- 오는 새해에는 사무소 이전 2기에 들어가는 만큼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 역할 정립과 다양성 확보에 방점을 둘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온라인 중소기업 포럼을 중심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지 진출기업에게 좀 더 다가가고, 현지 유관기관과의 공동웨비나 및 양국 중기단체간 교류 지원, 다채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한-베 중소기업간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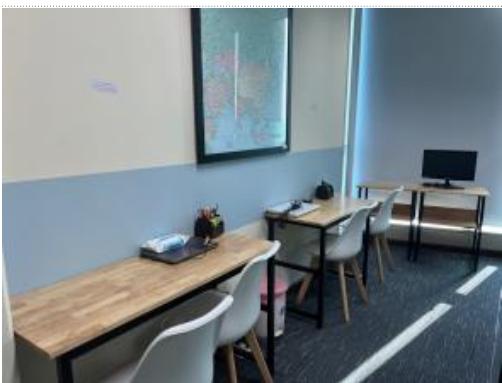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Es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 사실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출장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이 두터운 베트남의 경우 다양한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온라인사업 전환 시에 기업출장자 대신 현지 전문MD를 발굴하여 제품을 상담 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참여한 기업은 언제라도 직접 현지 마케팅을 하실 수 있도록 현지 SNS 내 상품영상을 게시하고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소 내 상품전시 공간 제공, 화상회의실 및 코워킹센터를 무상으로 운영하여 어려워진 출장만큼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상품 전시



□ 맷음말

- 중소기업 성장을 논의할 때 자주 쓰는 문구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참여하게 된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이 문구가 옳 한해 저희 사무소에서 명심해야 할 말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 앞서 언급한대로 팀코리아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진출기업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강점과 경험을 더하여 한-베 수교 30주년 이자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2022년을 의미있는 한 해로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고상구 회장의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4탄. 식품유통부문에 진출하다

K-MARKET 고상구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의 인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베트남 식품유통 부문에 진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당초 식품유통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K-Market의 설립은 참 우연찮게 시작 되었는데, 사실 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덕을 보았다. 사람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보면 도움 받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의 내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다. 나와 aT의 인연은 베트남 인삼 판촉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술했다시피 2002년에 백화점 사업이 실패하고, 2003년 나는 인삼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음해인 2004년 즈음에는 aT가 베트남에서 한국산 인삼에 대한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인삼 판촉전이라는 행사를 통해 베트남 내 인삼의 저변을 넓히는 방식이었다.

당시 하노이에서는 한국 기업 P사도 한국산 인삼을 취급하고 있었고 aT는 그 업체와 인삼 판촉전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해 듣기로 당시 행사 운영비는 30,000만불 가량으로 제법 큰 액수였는데 실제 행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정해진 운영비를 행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인삼 판촉전행사에 다소 실망한 aT 담당 직원은 어느 날 당시 장보 백화점 1층에 위치한 내 인삼매장을 찾아와 본인의 명함을 두고 갔다. 스타코리아와 새로이 인삼판촉전을 개최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코리아 인삼매장이 보다 고급스럽고 인삼의 가치가 잘 돋보이도록 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직원을 통해 명함을 건네받은 나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큰 관심이 없었다. 당시 aT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불릴 때였었고 나는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몰랐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내 매장에 방문했던 그 직원분은 행사 점검차 출장 중이었고 남은 베트남 출장기간 내내 내 연락을 기다렸었다고 한다. 그후 그분이 aT 싱가폴 지사에 나의 정보를 전달하고 싱가폴에 있는 aT 지사와 연결이 되어 이듬해 인삼판촉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aT판촉행사 지원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음.시식, 인쇄물(브로슈어) 및 쇼핑백 제작, 홍보도우미 지원 등으로 한정적이긴 하였으나 오히려 나는 이를 하늘의 도우심으로 생각했다. 한국의 인삼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어찌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 같아서 행사 개최를 수락한 이후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지원받은 운영비는 물론 그 외의 것들도 투입해서 준비했고 행사는 대성공으로 끝났다. aT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신뢰를 하게 된 것 같았다.



2006년경, 느닷없이 aT에서 나에게 한국식품유통을 해보라는 권유를 하는게 아닌가? 당시 베트남에는 호치민에만 작은 슈퍼마켓 수준의 한국식품점이 몇 개 있었고 하노이에는 아예 한국식품점이 없었고. 특히 베트남 현지시장에는 아예 한국식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을 때였다. 갑작스런 제안에 나는 자신이 없었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또 다른 분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aT담당자는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나는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다.



aT 호치민지사 개소식(2019.5.17)에 참석한 고상구 회장

한국라면의 실패와 또 다른 교훈

식품 유통을 시작하려니 막막했다. 일단 대기업의 문부터 두드렸다. CJ, 미원베트남(현 대상그룹)과 같이 당시 협력관계에 있었던 기업으로부터 식품을 받아서 판매해 보았다. 실패였다.

그러다 한국라면을 베트남시장에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농심 본사에 찾아갔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소량구매를 요청하는 나에게 영등포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라며 내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한국식품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베트남에 시장개척을 해보겠다고 간 것인데 그럼에도 환영 받지 못했다. 당시 나도 베트남에서 인삼왕 고상구로 제법 이름을 알리던 때였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을 했다. 인삼 신화의 효과일까 끈질긴 설득에 아무튼 결국 농심의 동의를 얻어 소량의 라면과 스낵류를 베트남으로 가져왔다.

결과는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실패였다. 50박스를 가지고 온 신라면 조차 유통기한이 지나 반도 못 팔고 폐기해야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라면 섭취에 대한 문화차이였다. 기존 베트남 라면은 한국의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이었고, 한국 라면은 냄비에 넣고 끓는 물에 조리해서 먹는 방식의 라면이었다. 이렇게 다른 섭취 방식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았다. 가격과 중량의 차이 또한 컸다. 한국산 라면의 경우 베트남산 라면 대비 5배나 비쌌고 중량은 베트남 라면의 약 2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도 내가 식품유통업을 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K-Mart(현 K-Market)의 시작

호치민에 있던 작은 한인마트가 교민들을 상대로 하던 소매점이었던 반면 나는 처음에는 B2B시장을 겨냥했다. Citimart(현재는 이온몰에서 인수), BIG C, Fivimart(현재는 빈마트에서 인수), 사이공 쿰마트 등에 한국식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사업은 순조로운 편이었고 한국식품을 베트남 대형 유통망에 공급한다는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수입해온 식품은 많은데 유통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여 재고가 쌓이고, 처치곤란의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소매식품 유통마트인 K-Mart(현 K-Market)이다. K-Mart 1호점은 2007년에 풍옌에 공식적으로 개장하였다. 당시 하노이에는 두 군데(C마트, S마트)의 한인마트가 운영 중인 상황이었고 나는 그 마트의 상권을 벗어난 지역을 찾아야 했는데 마침 눈에 띈 곳이 풍옌이었다.

1호점이 위치한 풍옌의 점포는 외진 곳에 위치해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마트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한국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하였다. 실내 분수대를 설치하고 파라솔을 쳐서 야외 좌석을 만들고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로 고급 스타일의 한인마트를 만들었다.

K-Mart는 성공이었다.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내가 생각하는 점은 바로 ‘새로움’이었다. K-Mart는 매번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들여올 때마다 한국의 핫한 상품을 가져왔다. 처음 스타벅스 병커피를 들여왔을 때 한국 사모님들이 엄청 좋아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한 점들이 한국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노이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직도 내게 인삼은 이제 취급하지 않는지 물어본다. 사업 환경이 계속 악화되던 2009년경 K-Mart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후년인 2010년도에 나는 인삼 장사를 사실상 접기로 마음먹었다. 식품유통 사업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만큼 사업이 커진 것이다.

<다음호에 5탄이 이어집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 벤처캐피털

IB컨설팅 대표 하만충 (변호사/미국 뉴욕 주)
raydooba12@gmail.com | 0975952206

베트남 벤처캐피털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베트남 스타트업을 위해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만충이라고 하며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M&A, 투자유치, 펀드, 스타트업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회부터 총 5회에 걸쳐 베트남 스타트업 & 벤처캐피털 관련 글을 코트라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이므로 베트남 스타트업 & 벤처캐피털 관련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해당 개념이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벤처캐피털 관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가정한다면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창업하였지만 가진 돈이 충분치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도 창업자들은 첫 번째로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한국처럼 베트남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0일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ĐCP)상의 인센티브 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No.37/2020/NĐ-CP, 이하 'Decree 37')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년 5월 15일 발효되었습니다. 정부자금을 취급하는 전문기관을 두고 즉, 우리나라처럼 창업진흥원, 자체 창업기관, 창업선도대학 등등에서 주관하도록 관련 법령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21년 Pilot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정된 베트남 창업선도대학에서(예를 들면 베트남 백화대학) 베트남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은 아직 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보통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곳이 은행인데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고 아이디어와 기초적인 기술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물로 갈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부기관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스타트업을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주는 형식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런 법률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이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여전히 관련 법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앤젤투자(Angel Investment),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 등의 개념을 설명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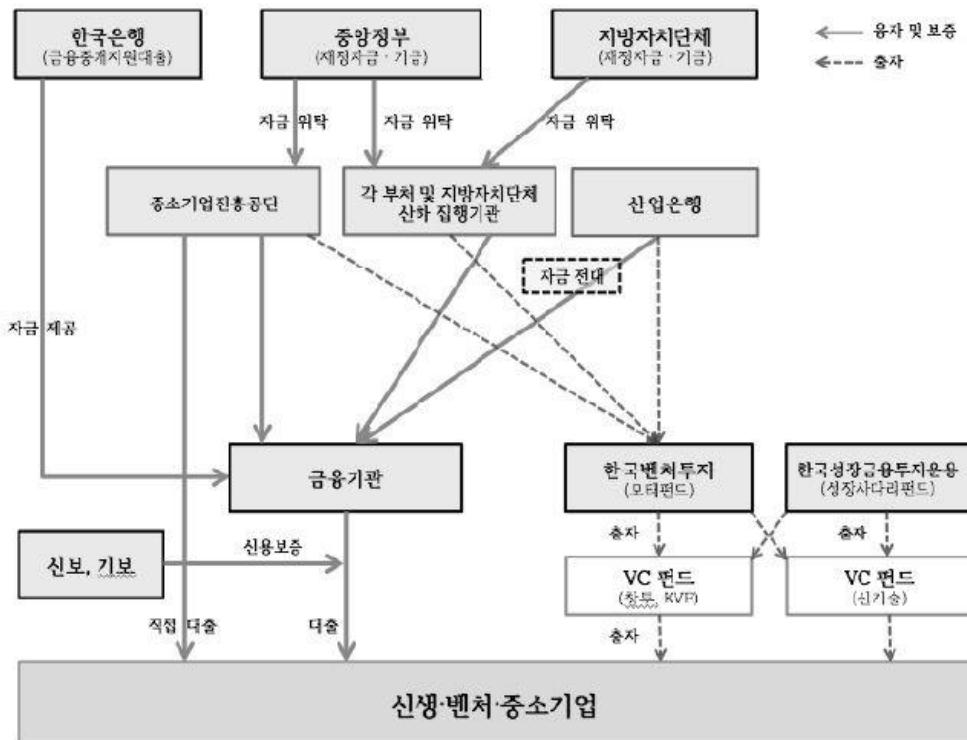
엔젤투자란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하기엔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액셀러레이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기획자로 불리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돋는 전문회사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을 돋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회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액셀러레이터 회사는 기업의 성장을 돋는 역할을 주로 하므로 자금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 회사는 엔젤투자자처럼 소액 투자를 주로 하므로 자본 규모도 벤처캐피털과 비교해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이든 액셀러레이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털 설립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며 자본금 1억원에 상근 전문인력 2명을 갖추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설립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훨씬 많은 자본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벤처캐피털 회사 그리고 사모펀드 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 대상 타겟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투자자로부터 Fund Raising을 통해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공히 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지는 GP(General Partner)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는 LP(Limited Partner)로 이루어집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은 이러한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투자대상과 전략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벤처캐피털은 사업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합니다.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잠재력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은 스타트업(Start Up) 그리고 초기단계(Early Stage)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High Risk 때문에 주로 소규모 자금을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규모 역시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나 돈을 대는 유한책임조합원(LP) '전주'가 있고 실제로 돈을 굴리며 투자회사를 결정하는 무한책임조합원(GP)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가 있는 것입니다. LP는 투자한 돈만큼 유한한 책임을 지고, GP는 모든 책임을 지는데 이 둘이 모여 '투자조합'을 결성합니다.



투자조합은 LP와 GP가 모은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창업한 안랩이 벤처캐피털을 통해 2011년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회사 ‘로블록스’에 2천만 원을 투자해 현재 250억원이 되었고 10년 사이 1천 278배 넘게 올랐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시대 흐름과 미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하는 벤처캐피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모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안랩처럼 벤처캐피털에 LP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회사에도 투자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대한민국 중소기업연구원

이제부터는 베트남에서 제가 느낀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내 엔젤투자자는 주로 개인이며, 엔젤투자에 전문화된 회사는 한국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엔젤투자란 베트남 개인이 사적으로 미화 오천불, 만불 정도 소액을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액셀러레이터 회사 관련 법률 정책과 세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 회사나 액셀러레이터 회사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설팅회사를 쉽게 설립한 후 자격이 없는 이들도 액셀러레이터로 나서고 있는 것이 베트남의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컨설팅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이름 뒤에 Capital이라는 이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캐피털 회사처럼 보이므로 쉽게 Fund Raising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붐을 타고 비전문가들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경험 및 Track Record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장래성이 유망한 베트남 초기 스타트업이 이런 곳으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받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사모펀드 시장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아직 벤처캐피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트남에도 벤처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베트남 법률 Decree 380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18년도부터 베트남에 벤처캐피털 회사가 하나 둘 씩 설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그 수가 거의 없다고 사료되며 옆 나라 말레이시아나 태국과 비교해도 베트남 벤처캐피털 회사의 수와 자금 규모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히 베트남에는 벤처캐피털이라는 시장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유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1. 베트남 법률 Decree 380이 제정되었지만 충분하지 않다. 즉, 벤처캐피털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베트남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 벤처캐피털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는 투자회사들이 베트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베트남 벤처캐피털이라는 조직의 실상은 결국 사모펀드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베트남에는 벤처캐피털이 활발히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Framework이 부재합니다. 벤처캐피털은 초기 스타트업에 자금과 자문 컨설팅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국내에서 벤처캐피털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률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Decree 380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Innovative Startup Fund”를 베트남 국내에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인 Innovative Startup Fund를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 보다 Innovative Startup Fund를 만들지 않고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일반 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Innovative Startup Fund를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경우 불리한 점만 존재합니다. 베트남 법률은 “Innovative Startup Fund”的 경우 30명 이상으로부터 자금유치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베트남 법률은 Innovative Startup Fund가 투자대상 스타트업의 지분 51% 이상을 획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법률은 Innovative Startup Fund와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일반화된 투자계약 즉,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등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이 선호하는 투자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도 베트남 현지에 Innovative Startup Fund를 만들어 투자를 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도 Decree 38에 따라 제가 Fund Management Company License를 자문 드린 고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Innovative Startup Fund 설립 결정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즉, 베트남 국내에 가지고 온 LP 자금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원금을 다시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국내에 펀드를 설립할 경우 Tax incentive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국투자자가 외국에서 펀드를 설립하여 투자하지 않고 베트남 국내에 Innovative Startup Fund를 설립하여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에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미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서고 중견기업 수준으로 이미 Scale Up을 이룬 기업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벤처캐피털이라고 홍보하는 조직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벤처캐피털이라는 조직의 투자 방식보다는 결국 사모펀드의 투자방식입니다. 베트남 벤처캐피털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고 따라서 베트남 벤처캐피털 시장도 스타트업 시장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각종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베트남 사모펀드가 베트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베트남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수요를 충족 시켜 줌으로써 초기 스타트업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게 되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청년 취업시장에도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제고됩니다. 담보가 없어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이 투자하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벤처캐피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률, 특히 Decree 38이 혁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끝>



헷갈리는 베트남의 토지 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소유권 증서 한방에 정리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토지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증서는 증서 겉표지 색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드북과 핑크북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관련법이 여러 번 변경되어 어느 기간에 발행된 증서 인지에 따라 증서의 성격이 달라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토지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에 대한 증서는 어느 기간에 발행 되었는지에 따라 증서의 이름과 성격이 다르다.
- 현재는 모든 경우에 일명 ⑤ 핑크북이 발급된다.
-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① ~ ④ 증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에 발급받은 ① ~ ④ 증서를 변경할 경우, ⑤ 핑크북이 발급된다.

토지사용권 증서 [도표의 ① 레드북]

겉장		
	속장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 및 부지에 부착되는 자산소유권 증서 [도표의 ⑥ 현재 핑크북]

겉장		
	속장	



증서의 한국어 이름 (번역)	토지사용권 증서	주택소유권과 주거용 토지사용권 증서	주택소유권 증서	건축물소유권 증서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 권 및 부지에 부착되는 자산소유권 증서
증서의 베트남어 이름 (원어)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quyền sử dụng đất ở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ở hữu công trình xây dựng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tài sản khác gắn liền với đất
증서의 영어 이름 (번역)	Certificate of Land use right (LURC)	Certificate of House ownership and Residential land use right	Certificate of House ownership	Certificate of Constructional work ownership	Certificate of Land use right, House ownership and Other properties attached to the land
증서의 별칭	① 레드북	② 구(舊) 핑크북	③ 구(舊) 핑크북	④ 건축물 소유권 증서	⑤ 현(現) 핑크북**
증서 발행 기간*과 기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버전: 1989. 7. 14 ~ 2004. 11. 30 [토지] 2차 버전: 2004. 12. 1 ~ 2009. 12. 9 [토지, 단독주 택,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버전: 1994. 7. 5 ~ 2005. 8. 9 [단독주택, 아파 트, 도시지역의 주거용 토지] 2차 버전: 2006. 10. 8 ~ 2009. 12. 9 [단독주택(아파 트는 포함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버전: 2005. 8. 10 ~ 2006. 10. 7 [단독주택, 아파트] 2차 버전: 2006. 10. 8 ~ 2009. 12. 9 [단독주택(아파 트는 포함 안됨)] 	2005. 8. 10 ~ 2009. 12. 9	2009. 12. 10 ~ 현재 [all-in-one (토지, 단독 주택, 아파트, 공장, 나 무 등)]
증서 발급기관	증서의 버전(즉, 증서의 발급시점), 토지의 용도, 사용자의 종류에 따라 다름			기관은 지방의 인민위원회 또 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의 건 설부(Departm ent of constru ction) 개인은 관할 지 역의 인민위원회	기관과 외국투자법인 은 지방의 인민위원회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 자원환경부 (Department of natu ral resources and en vironment[DONRE]) 개인은 관할 지역의 인 민위원회

* 관련 여러 서식이 있어, 효력 발생일을 어떤 관련 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느냐에 따라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음.

** 일부는 현(現) 핑크북을 '레드북'이라고도 부름.

○ 2009년 12월 10일 이전

-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② 구(舊) 핑크북 또는 ③ 구(舊) 핑크북이 발급됨. 토지 사용권도 있다면 ① 레드북도 발급.
-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② 구(舊) 핑크북 또는 ③ 구(舊) 핑크북(1차 버전)이 발급됨. ① 레드북은 발급되지 않았음.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기록은 증서 발행 시기와 버전에 따라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았음.

○ 2009년 12월 10일 ~ 현재

위의 모든 경우에 ⑤ 핑크북이 발급됨. 과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① ~ ④ 증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에
발급받은 ①~④ 증서를 변경할 경우, ⑤ 핑크북이 발급됨.

-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⑤ 핑크북에 기재됨.

<끝>



베트남 중북부 유망 투자지 - 응에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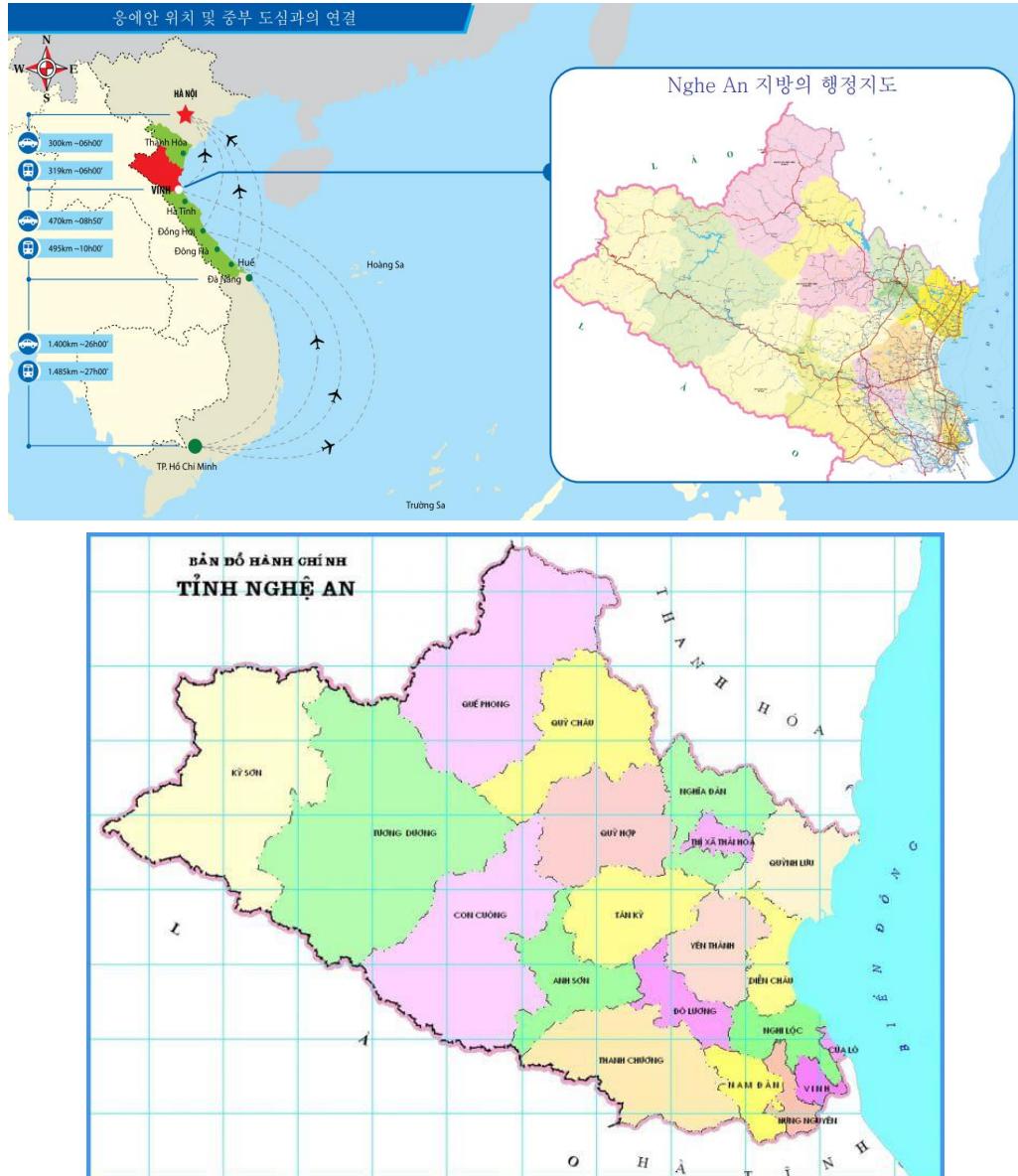
□ 응에안(Nghe An)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16,500km² 인구: 3.3백만명('21년)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에안성은 베트남 중북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남중국해, 남쪽으로는 하庭(Ha Tinh)성, 서쪽으로는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과 인접해 있음 수도 하노이시에서 남쪽으로 300km, 다낭(Da Nang)시에서 북쪽으로 470km 떨어져 있으며, 468km의 국경인접선 및 82km의 해안선을 보유
접근성	<p>응에안성에는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유형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응에안성을 관통하는 남북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응에안성과 하노이시 간의 이동 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철도: 빙(Vinh)역은 1급 역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역임 항공: 빙(Vinh)시내에 빙(Vinh)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4.45%('20년) 성 1인당 GDP: US 1,900 달러/년('20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11.23억 달러 / 총 수입액: US 7.35억 달러('20년)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7.92%), 서비스업(2.22%), 농수산업(4.99%)('20년)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30.83%, 서비스업: 44.03%, 농수산업: 25.14%('20년)
노무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61%('20년)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61.5%('20년)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끄어러(Cua Lo)군, 응이록(Nghi Loc)현, 흥응웬(Hung Nguyen)현: VND3,430,000= US150 달러(3급지) 타 지역: VND3,070,000= US134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에안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10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4.5억 달러 (한국) 응에안성의 총 한국투자는 3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96억 달러, 응에안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 투자액 기준으로 2위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 인프라



(도로) 응에안성을 관통하는 남북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시 응에안성에서 하노이시까지의 거리는 약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인프라 투자 방향:

- 응이선(Nghi Son) - 끄어러(Cua Lo) 해안 도로
- 끄어러(Cua Lo) 국제 항구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남 경제 구역의 도로
- 빈(Vinh)시-홍응웬(Hung Nguyen)현을 연결하는 72m 도로
- Dong Hoi(동허이)항구 방파제 시스템



(항구) 응에안성은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 4개국을 연결하는 동서경제회랑지대(EWEC)에 위치해 있으며, 라오스 및 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및 수출 시 베트남 중부의 항구로 연결됨.

국제 항구 클러스터:

1. 꼬어리(Cua Lo) 항구

- 동서경제회랑지대에 포함됨
- 빈(Vinh)시에서 15km 떨어져 있음
- 4개의 주요 부두 및 3개의 대형창고가 있음
- 9ha의 면적
- 적재 및 하역 능력 1,300만톤/년
- 10,000 DWT의 선박 수용가능

2. 비사이(Vissai) 항구

(1단계)

- 부두의 길이는 2,000m임
- 70,000DWT의 선박 수용가능

(2단계)

- 100,000DWT의 선박 수용가능

3. DKC 휘발유 항구

- 10,000 ~ 49,000DWT의 선박 수용가능

4. 동허이(Dong Hoi) 항구

- 30,000 ~ 50,000DWT의 선박 수용가능

(철도) 남북 철도의 길이는 94km 임. 빈(Vinh)역은 1급 역으로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임.

(항공) 빈(Vinh)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객 성장률(56% 이상)을 보이며, 터미널은 연간 250만~300만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음. 빈(Vinh)공항에는 국내선 전체 노선 및 일부 국제선 노선이 있음. 가까운 시일 내에 응에안 공항에서 인천(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

인프라 투자 방향:

- 빈(Vinh) 국제공항 업그레이드 및 확장 터미널 T2 건설 계획
- 기존 활주로를 개조 및 업그레이드
- 제 2 활주로 건설
- 국내 및 국제 노선의 추가 개설



○ 관광

응에안성은 평야, 바다, 산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진 베트남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성으로 산림자원, 해양자원, 광물자원 등이 풍부한 자연의 축복을 받은 지역임.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끄어러(Cua Lo) 해변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관광지들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응에안성은 고급 리조트와 다양한 식물 생태계를 갖춘 국립공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케(Khe)폭포, 타잉츠엉(Thanh Chuong)섬 등과 같은 유명 관광지들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곳 임.

응에안성에서 문화·역사적으로 뛰어난 지역:

- 3개의 특별 국가유적지: 남단(Nam Dan)현 깜리엔(Kim Lien) 마을, 판보이짜우(Phan Boi Chau) 기념 구역, 화잉선(Hoanh Son) 사찰
- 413개의 국립 및 성급 유적지
- 푸맛(Pu Mat)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응에안 서부지역 생물보호구역
- 끄어러(Cua Lo), 바이루(Bai Lu), 꾸잉프엉(Quynh Phuong), 꾸잉럽(Quynh Lap), 지엔타잉(Dien Thanh)과 같은 해변지역
- 인류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인 응에띤(Nghe Tinh) [응에안(Nghe An)-하띤(Ha Tinh)]의 민요





○ 인센티브 지원 정책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됨:

-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 세부규칙 및 시행령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에 따름
- 수입세: 수입세 및 수출세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에 대한 제134/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름
- 토지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에 따름

투자지역	법인세/수입세	투자 지원 정책
동남(Dong Nam)경제구역, 끼선(Ky Son)현, 뜨엉즈엉(Tuong Duong)현, 컨꾸엉(Con Cuong)현, 꾸에퐁(Que Phong)현, 꾸Hop(Quy Hop)현, 꿔자우(Quy Chau)현, 안선(Anh Son)현	<p>법인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간 세율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p>수입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생성을 위한 수입된 물품 대상 면세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 대상 5년간 면세 	<p>1. 근로자 훈련 비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백만 동/근로자(1회) <p>2. 투자 준비 비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단계에서 투자 절차 진행 비용의 50% 지원, 프로젝트 당 2억 동 이내 <p>3. 프로젝트 펜스 외 인프라 건설 투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펜스 외 교통도로, 배수 시스템 투자 지원 -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펜스까지 전력 공급, 급수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투자 지원 - 토지 매입 비용의 50% 지원 - 기타 특정 지원 정책
판기(Tan Ky)현, 응이아단(Nghia Dan)현, 탄즈엉(Thanh Chuong)현, 타이화(Thai Hoa)군	<p>법인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p>수입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생성을 위한 수입된 물품 대상 면세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 대상 5년간 면세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1월말까지 응에안성 대상 총 외국인투자는 102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4.5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음.

○ 한국계 투자

2021년 11월말까지 한국투자는 32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96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었으며, 응에안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 투자액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함. 한국 투자자들은 주로 전자 제조, 의류 및 농업 생산 분야에서 투자하고 있음.



○ 응에안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D)
1	Everwin Precision Vietnam Technology Co., Ltd	전자 부품	홍콩	200,000,000
2	VSIP Nghe An Co., Ltd	공단 인프라	싱가포르	186,980,000
3	Luxshare ICT Nghe An 공장	지원 산업(Apple사 케이블, 충전기, 이어폰 등의 장치 제공 전문)	중국	140,000,000
4	Goertek Vina Co., Ltd	정밀 장치: 정밀전자공학, 센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이어폰, 로봇 등	홍콩	100,000,000
5	WHA Industrial Zone Nghe An JSC	공단 인프라	태국	92,000,000
6	Matsuoka Corporation	섬유	일본	37,000,000
7	BSE Vietnam Co., Ltd	전자 부품	한국	30,000,000
8	Em-Tech Vietnam Co., Ltd	전자 부품	한국	19,730,000
9	Innovative Manufacturing Solutions Vietnam Co., Ltd	전자 부품	한국	14,500,000
10	Woosin Vina Co. Ltd	자동차 부품	한국	14,000,000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입주율	토지임대료	투자 유치희망 분야
1	WHA	2017	• 1 단계: 143.5 • 2 단계: 354.5 (2022년 3분기에 운영 예정)	55% (‘21.12월 기준)	50USD/m ²	환경오염 비유발 경공업
2	VSIP	2015	370	46% (‘21.11월 기준)	임대 면적에 따른 (최소 1ha)	전기전자, 의류, 식료서비스, 제약, 첨단산업, 지원산업 등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
3	황마이 1 (Hoang Mai 1)	2021	264.77	80% (‘21.11월 기준)	42~45USD/m ² /50년	전기전자, 통신 장비 제조 및 조립, 제약, 화학, 약품원료, 식품 및 음료 가공, 섬유 산업, 제조·가공 산업 등
4	황마이 2 (Hoang Mai 2)	2021	330.43	0%	42~45USD/m ² /50년	



□ 투자 유망분야

- (산업) 전자부품 제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조립, 경금속, 섬유 및 건축 자재 제조 분야
- (소비재) 식품가공, 가전제품 및 장비, 특히 첨단농업
- (물류) 국내 항만 인프라 개발, 통합 현대 물류 서비스 및 창고 시스템

□ 응예안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응예안성 투자, 무역 및 관광 진흥센터	Mr. Bui Duy Dong(센터장) Mr. Nguyen Van Nam(부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238-872-2788 • Website: napc.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21. 11. 20 기준 누계		2021. 1. 1 ~ 1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203	74,138.38	322	1,055.74	4,355.52
일본	4,792	64,224.95	183	2,706.48	3,700.64
싱가포르	2,815	63,577.40	196	5,352.29	7,601.41
대만	2,842	35,129.38	58	283.19	1,187.35
홍콩	2,035	27,655.24	116	1,564.57	2,108.82
버진아일랜드(영)	880	22,019.77	27	219.8	540.81
중국	3,308	21,153.24	183	1,630.91	2,685.22
말레이시아	668	13,012.40	20	23.19	138.83
태국	643	12,981.65	33	190.13	330.52
네덜란드	381	10,480.98	23	141.63	1,138.32
미국	1,135	10,061.22	71	371.6	699.02
기타	5,722	51,456	345	518	1,976
전체 합계	34,424	405,890.45	1,577	14,057.75	26,462.7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1. 11. 20 기준 누계		2021. 1. 1 ~ 11. 20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558	240,227.98	481	6,276.71	14,025.54
2	부동산경영	987	61,561.85	52	1,305.54	2,409.3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74	33,876.41	22	5,315.90	5,710.87
4	호텔, 외식서비스	897	12,541.67	19	36.22	157.52
5	건설	1,769	10,915.69	25	57.54	453.49
6	도소매, 유지보수	5,553	9,101.05	443	273.03	1,266.53
7	물류운수	915	5,806.01	50	426.02	791.95
8	채광	108	4,898.40	-	-	1.47
9	교육, 양성	607	4,433.31	25	12.48	41.12
10	정보통신	2,451	4,178.90	145	150.93	320.15
11	기술과학전문	3,770	4,081.49	260	125.43	922.87
12	농, 임, 수산	516	3,719.67	15	59.97	135.96
13	예술 오락	137	3,392.34	1	0.13	1.64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0	2,899.75	1	1.01	110.75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1.34	1	1.1	4.48
16	행정, 지원 서비스	519	986.03	35	11.08	43.5
17	기타서비스	79	788.69	1	4.5	62.31
18	금융, 은행, 보험	145	728.8	1	0.15	3.28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4,424	405,890.45	1,577	14,057.75	26,462.7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8	2019	2020	2021.11(누계)
수 출	2,434.8	2,641.8	2,826.5	3,017.3
수 입	2,366.8	2,530.7	2,627.0	3,002.7
무역수지	68.0	111.1	199.5	14.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11(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9,077	51,378	51,183	51,936
전기전자제품/부품	29,320	35,925	44,576	45,512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49	18,303	27,193	34,046
섬유/직물제품	30,448	32,850	29,809	29,141
신발류	16,238	18,320	16,791	15,814
원목 및 목제품	8,908	10,647	12,371	13,361
철강제품	4,549	4,210	5,258	10,844
수송수단 및 부품	7,964	8,505	9,090	9,540
수산물	8,794	8,543	8,412	7,988
원사(Yarn)	4,025	4,176	3,736	5,077
기 타	67,611	71,332	74,235	78,473
합 계	243,483	264,189	282,654	301,73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11(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197	51,353	63,971	68,14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27	36,748	37,251	42,33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5,865	14,615	16,645	19,159
의류(원단)	12,774	13,276	11,875	12,953
플라스틱 원료	9,066	8,991	8,397	10,585
각종 철강	9,890	9,507	8,066	10,512
기타 비금속	7,249	6,385	6,052	7,828
플라스틱 제품	5,893	6,538	7,274	7,249
화학제품	5,030	5,419	5,741	6,992
화학물질	5,163	5,128	5,016	6,776
기 타	89,833	95,110	92,412	107,746
합 계	236,687	253,070	262,700	300,27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 (누계)
1	미국	41,608	47,526	61,347	77,077	86,031
2	중국	35,463	41,268	41,414	48,905	50,166
3	한국	14,823	18,205	19,720	19,107	19,875
4	일본	16,841	18,851	20,413	19,284	18,114
5	홍콩	7,583	7,955	7,156	10,437	10,539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6,862
7	독일	6,364	6,869	6,555	6,644	6,517
8	인도	3,756	6,542	6,674	5,235	5,715
9	태국	4,786	5,494	5,272	4,917	5,588
10	영국	5,424	5,776	5,758	4,955	5,241
	기타	77,364	77,921	82,999	79,094	87,084
	합계	214,019	243,483	264,189	282,654	301,73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 (누계)
1	중국	58,229	65,438	75,452	84,187	99,397
2	한국	46,734	47,497	46,935	46,895	50,495
3	일본	16,592	19,011	19,526	20,341	20,293
4	대만	12,707	13,228	15,173	16,701	18,843
5	미국	9,203	12,753	14,365	13,713	14,129
6	태국	10,495	12,023	11,656	10,968	11,420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7,422
8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7,204
9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6,801
10	인도	3,940	4,147	4,538	4,435	6,369
	기타	40,521	46,238	47,975	48,826	57,901
	합계	211,103	236,687	253,070	262,700	300,27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11(누계)
수 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51,117(18.1)
수 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21,784(15.4)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29,332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누계)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12,628(20.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10,723(30.7)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3,037(-3.8)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2,191(7.5)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2,180(52.3)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1,143(19.5)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1,069(-0.9)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1,046(-0.9)
계측제어분석기	1,058(145.1)	696(-34.2)	783(12.4)	669(-14.5)	881(45.6)
자동차부품	385(-12.7)	474(23.3)	668(40.9)	673(0.8)	839(45.9)
기타	17,516	16,121	16,350	15,244	15,375
합 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11(0.7)	51,117(18.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누계)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5,139(10.3)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3,176(8.0)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1,520(36.9)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888(-5.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801(-17.0)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676(18.9)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659(26.6)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640(23.3)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559(30.0)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429(15.9)
기 타	5,279	6,197	6,330	6,473	7,292
합 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21,784(15.4)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0년(연간)	%	△5.4	△9.5	△5.6	△2.1	2.9
	2021년 2Q	%	14.7	12.0	16.1	7.1	6.6
	2021년 3Q	%	6.5*	7.1	△4.5	3.5	△6.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107.5	N/A	109.8	147.0
		2021년 10월	-	124.2	527.3	123.7	N/A
		2021년 11월	-	N/A	122.5	N/A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0년(연간)	-	N/A	N/A	102.4	44.7
		2021년 10월	-	50.8	51.0	114.7	57.2
		2021년 11월	-	50.6	51.7	N/A	52.2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0년(연간)	-	99.8	N/A	79.5	93.6
		2021년 10월	-	103.0	N/A	N/A	113.4
		2021년 11월	-	104.0	N/A	N/A	118.5
	소매판매	2020년(연간)	-	81.7	N/A	131.0	197.5
		2021년 10월	-	N/A	3.5%*	138.5	195.5
		2021년 11월	-	N/A	N/A	N/A	△12.2%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0.2	N/A	△1.2	104.9
		2021년 10월	%	3.2	4.6	2.9	106.7
		2021년 11월	%	3.8	4.2	N/A	107.1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0년(연간)	%	171.7	N/A	1.5	△5.0
		2021년 10월	%	N/A	N/A	N/A	1.1(누계)
		2021년 11월	%	N/A	N/A	N/A	0.1(누계)
고용	실업률	2020년(연간)	%	3.0	10.4	4.5	7.1
		2021년 2Q	%	N/A	8.7	4.3	6.3
		2021년 3Q	%	N/A	6.9	N/A	6.5
무역	수출증가율	2020년(연간)	%	△3.2	△10.1	△1.4	△2.2
		2021년 10월	%	22.6	2.0	25.5	53.4
		2021년 11월	%	31.3	N/A	N/A	49.7
	수입증가율	2020년(연간)	%	△7.4	△23.3	△6.3	△16.9
		2021년 10월	%	25.6	25.1	27.9	51.1
		2021년 11월	%	31.9	N/A	N/A	52.6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RCEP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안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부터 출범함에 따라 한국의 통상영토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로 확장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의 RCEP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RCEP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심 기업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I . 개요

1. RCEP이란?
2. RCEP 회원국 수출입 동향
3.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II . RCEP 협정 활용 프로세스

1. RCEP 협정 활용 절차
2. RCEP 협정문 주요 특징

III . RCEP 협정의 차별점

1. 한-RCEP간 기 체결 FTA현황
2. 기존 FTA 협정과 주요 차별점
3. 일본과의 최초 FTA활용방안

IV . RCEP 협정 활용 TIP

1. 회원국별 주요 양허품목
2. RCEP 협정 활용 유망업종
3. RCEP활용 지원대책

○ 다운로드 방법

-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게시글로 이동 후 첨부화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기



[모집공고] 2022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KOTRA와 인천테크노파크(ITP)는 2022년 4월 13일 ~ 16일(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022 베트남 엑스포’에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박람회 개요

- 명 칭 : 2022 베트남 엑스포 (VIETNAM EXPO 2022)
- 기 간 : 2022. 4. 13(수) ~ 16(토), 4일간
- 장 소 : 베트남 하노이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ICE)
- 개최규모 : 약 16,000㎡
- 주 최 : 베트남산업무역부, 베트남무역진흥공사
- 홈페이지 : <http://vietnamexpo.com.vn/en>
-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관은 리모트 부스로 전시회 참가운영
※ 개별부스 지원이 아닌 현지 공동스탭을 운영하여 샘플전시 쇼케이스(전시공간지원) 및 원격상담운영 지원

2. 온라인 한국관 참가개요

- 한국관 규모 : 180m²(예정)
- 참가연혁 : 1999년 최초 참가 이래 23회째 참가
- 전시품목 : 기계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건축자재, 섬유, 신발, 의료기기,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및 통신제품 등 종합품목

3. 참가신청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2. 12. 20(월) ~ 2022. 1. 7(금)
- 나. 신청방법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이지훈 대리
Email: blaste1@itp.or.kr Tel: 032-260-0638
- KOTRA 본사 전략전시팀 이재은 과장
E-mail : shaojae@kotra.or.kr Tel : 02-3460-7274
- KOTRA 하노이무역관 구자승 과장
E-mail : kujs99@gmail.com, kujs@kotra.or.kr Tel : 84-(0)24-3946-0511



클릭하여 게시글로 이동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